제122호
2006년 6월 5일 (월요일)
http://www.sacheon.go.kr

사천시보

함께하는 시민 살기좋은 사천

市政方針

1. 활력있는 지역경제
1. 도약하는 첨단산업
1. 만족하는 복지시정
1. 조화로운 지역개발
1. 특색있는 문화관광

발행인 : 사천시장 편집 : 기획담당관실 발행처 : 사천시 (664-701)경남 사천시 벌리동 427-1번지 대표전화 (055) 830-8212, FAX 830-4219 E-mail:gongbo@e4000.net

김수영 제7대 사천시장 당선

지난 5월 31일 실시된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사천시장에 김수영(金守英·60세) 현 시장이 당선되었다.

전체 투표자수 5만7405명 가운데 42.2%인 2만3725표를 얻어 당선했다.

무소속의 정만규 후보는 36.8%인 2만681표, 무소속의 송도근 후보는 21.1%인 1만1860표를 각각 득표했다.

제7대 사천시장에 당선한 김수영 시장은 당선소감에서 '존경하는 사천시민 여러분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서두로 '끝까지 선전해 온 두 후보자께도 수고하셨습니다'는 인사를 드리며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라고 소감을 밝히며,

앞으로 '우리 시에서 가장 시급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재 추진중인 사업들을 중단없이 잘 마무리하며 시정과 지역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모든 열정과 정성을 아낌없이 쏟아 부어 최선을 다할 것'과 '그동안 약속드렸던 공약들의 조속한 실행', '조화와 화합의 복지시정 구현', '새로운 계획의 수립은 시민 화합차원에서 이번에 같이 입후보했던 다른 후보들의 공약도 수렴하여 시의 발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모든 역량을 시의 발전을 위해 집중시켜 조화와 화합으로 진정 하나되는 사천 건설', '사천을 서부 경남을 주도하는 중추도시건설', 그리고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고 시민을 섬기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시정 추진계획을 밝혔다.

김수영 시장은 서포면 출신으로 육사를 졸업하고 창원군수와 울산군수, 하동군수를 거쳐 마산 부시장, 도공무원교육원장, 경남도의회 사무처장, 5대, 6대 사천시장을 역임했다.

창선·삼천포대교 '한국의 아름다운 길' 대상

지난 5월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교통협회가 선정한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 대상에 '다리의 향연 창선·삼천포대교'가 대상을 수상하였다.

사천시 대방동에서 남해군 창선면을 잇는 국도 3호선 창선·삼천포대교는 총연장 3.4km의 섬다리로 5개의 교량이 제각기 다른 공법으로 시공되어 한려해상의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국내 최초의 해상복합 교량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상정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선정

상정마을(곤양면 서정리 소재)이 경상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선정되어 2007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총 사업비 2억원을(국비 1억원,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들여 올해 체험 프로그램 등의 기본 계획을 마련한다.

깨끗하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마을 조성을 토대로 도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과 체험공간을 제공하여 돌아오는 농촌과 살고 싶은 농촌을 건설하여 친환경 농업과 자연경관을 활용해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등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휴양 체험공간으로 활용하게 된다.

주요 핵심사업으로는 딸기 등의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사체험, 다슬기 잡기 체험, 고기잡기 체험, 갯벌체험, 대나무 뗏목타기 체험과 대나무 삼림욕장, 민박사업 등 단체 숙박시설을 구비하여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고, 다양한 체험 시설을 마련, 계절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촌을 찾는 도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천년사찰인 다솔사, 지리산 등과 연계한 관광지를 개발하여 머무르며 체험하고 관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시민들에게 마음의 안식처를 제공하게 된다.

또 도농 교류사업을 추진하여 인근 대도시 지역주민과의 자매결연을 맺어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공동구매하여 생산비 절감은 물론 도시민들에게 값싼 우리 농산물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활발한 도농 교류사업을 추진하여 자연을 배우고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에서는 기존의 녹색농촌체험마을, 팜스테이 마을, 어촌체험마을을 각 1개소씩 운영하고 있어 주민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통해 복지농촌 건설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2006 새해영농설계교육 전국 최우수기관 표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치영)는 지난 5월 11일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충북 천안소재)에서 농촌진흥청 주관한 '2006 전국 농업기술센터 새해영농설계교육 추진평가'에서 최우수 기관 표창을 받았다.

사천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월 12일부터 2월 11일까지 24개소 교육장에서 9개 작목, 1604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가에 필요한 맞춤식 새해 영농 설계교육을 펼쳐 새소득 작목 기술보급과 농업인 의식변화에 크게 기여한 점 등이 높이 평가되었다.

특히 '탑 라이스' 수준의 고품질 쌀 생산기술 교육과 딸기 품종 로열티 대응을 위한 품종 전환 교육, 친환경농업 교육 등 농가에 필요한 맞춤식 교육으로 높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새해영농 설계교육을 시발점으로 5개의 신규 품목별 연구 모임이 조직되었고 특히 풋마늘 연구회의 결성을 통한 사천 풋마늘 인지도 상승으로 농가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2006 사천세계타악축제 자원봉사자 모집

▶사천세계타악축제 일정 : 8. 3 ~ 8. 6(4일간)/삼천포대교 기념공원외 일원

▶자원봉사 모집안내
- ㅇ모집인원 및 자격 : 50명, 남·여 만 19세~50세까지
- ㅇ모집기간 및 활동내역 : 6월 30일까지, 축제행사 안내
- ㅇ접수장소 : 사천세계타악축제 추진위원회 상황실(문화예술회관 1층 휴게실)

『길놀이』참여 개인 및 단체 접수

▶사천세계타악축제 길놀이 일정 : 8. 3(목) 16:00
- ㅇ 길놀이 구간 : 삼천포공설운동장~삼천포시외버스터미널~삼천포초등학교

▶길놀이 참여안내
- ㅇ 참여 : 전 시민(가족단위 참여환영), 단체 및 각 학교 관악, 농악
- ㅇ 접수기간 : 7월 10일까지
- ㅇ 접수장소 : 사천세계타악축제 추진위원회 상황실(문화예술회관 1층 휴게실)

제4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당선 영광의 얼굴 ⇒ 4면
제11회 와룡문화제 이모저모⇒ 5면

시민 정서함양은 '사천 아카데미' 교양강좌로

김 보 화

이 시 형

변화와 혁신에 적응하고 시민들의 교양함양과 평생교육차원에서 지난해 8월부터 실시한 사천아카데미가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계로 중단되었다가 오는 6월 22일부터 재개된다.

사천아카데미는 새로운 지식과 더불어 옛 지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정보와 알권리를 제공함으로써 참여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매월 1회 실시하는 사천아카데미는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 시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교양함양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에 도움을 주고자 사천읍지역과 동지역에서 격월로 실시하고 있다. 21세기 디지털시대에 부응하는 좋은 시책으로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발시키면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새로운 시민으로 거듭나게 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참석자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제8강 6월 22일 사천체육관, 방송인 김보화의 '프로라는 사람은 프로정신이 있다'

제8강은 6월 22일 사천체육관에서 방송인 김보화의 '프로라는 사람은 프로정신이 있다' 란 주제로 강의를 개최한다. 방송인 김보화씨는 82년 MBC 개그 콘테스트 1기로 데뷔하여 일요일밤의 대행진, 청춘만세, 영 11, MBC 라디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KBS 라디오 '김보화의 트로트 가요앨범' 등을 진행하여 대중적인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으며, 85년에는 MBC 연기대상 코미디부문 신인상과 86년 MBC 연기대상 코미디부문 우수상, 87년 MBC 연기대상 코미디부문 최우수상, 88년 한국일보 주최 우리들의 스타상, 88년 백상예술상에서 신인상을 수상하였고, 현재 SBS 모닝와이드 리포터, 진품명품 및 다수의 TV 쇼프로그램 방송에 출연하고 있으며 방송인 김보화씨의 명강의를 기대하고 있다.

제9강 7월 13일 문화예술회관, 이시형 교수의 '감성시대'

제9강은 7월 13일(목) 오후 3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이시형 교수의 '감성시대' 란 주제로 미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인 감성의 전제조건은 무엇이며, 참된 인간관계, 사람을 움직이는 감성적인 대화법 등 알차고 유익한 강좌가 예정되어 있다.

이시형 교수는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미국 메르시 병원 인턴, 미국 이스턴 주립병원 청소년과장, 경북의대 정신과 교수, 서울 의대 외래교수, 강북삼성병원 정신과 부장, 서울고려병원장 역임, 성균관대학 의대 교수, 동남 신경정신과 전문의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회원 및 학회장과 미국정신의학회 정회원, 한국청소년정신의학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한국자연의학종합연구원 원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저서로는 「자신 있게 사는 여성」,「신나게 살아라」,「부모가 변해야 자녀가 바뀐다」 등 다수가 있다.

한편 시는 사천아카데미가 시민들에게 삶을 아름답게 하고 감동을 주는 교양강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문의/총무과 ☎830-4270

푸른 사천 가꾸기, 전원형 도시 탈바꿈

생활주변 다양한 녹지공간과 도시공원 조성

시가 쾌적하고 여유로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푸른 사천 가꾸기사업으로 올해 총 1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관내 생활주변 14개소에 다양한 녹지공간과 격조높은 문화휴식 공간을 조성한다.

시가 올해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푸른 사천 가꾸기사업에는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용현 장송~남양 미룡마을간 해안도로변 공한지 2개소에 전년도에 이어 테마가 있는 친수공간을 올 7월말까지 조성해 사천시를 찾는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낭만이 있는 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신수도에 6000만원을 들여 주민과 섬을 찾는 관광객들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체육시설을 겸한 소공원도 6월중에 조성하고 관내 생활주변에 10개소에 2만4000여 그루의 큰 나무와 함께 다양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게 된다.

이같이 시가 2001년도부터 추진한 푸른 사천 가꾸기사업은 80억원의 사업비로 50만본의 나무를 식재하고 다양한 녹지공간을 마련, 시민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전원형 도시로 탈바꿈하

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3일에는 생활주변 나무심기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식목일을 맞아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추진, 영산홍, 장미, 황매화, 말발도리 등 7종 1만1240본의 나무를 시민에게 나누어줌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았다.

한편 시는 내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총 40억원의 사업비로 사남면 방지리와 초전리 일원에 11만1586㎡ 규모의 진사생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다. 이같이 다양한 생활주변의 녹지공간을 마련하고 도시공원을 조성하는데 전 행정력을 쏟고 있는 만큼 전원형 도시로 탈바꿈하는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통계청에서는 6월 12일~7월 7일까지

광업 · 제조업 통계조사를 실시합니다

통계청에서는 6월 12일부터 7월 7일까지 '제31회 광업 · 제조업 통계조사' 를 실시한다.

이 조사는 우리나라의 광업과 제조업 부문에 대한 산업구조와 분포 및 산업활동 실태를 파악하여 각종 경제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조사이므로 사업체 경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광업 · 제조업 통계조사에서 수집되는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통계법 제 13조 규정에 의하여 엄격히 보호된다.

▶ 조사대상 : 종사자 5인 이상의 모든 광업, 제조업사업체
▶ 조사기간 : 6. 12. ~ 7. 7(26일간)
▶ 조사사항 : 전년도 1년간(2005. 1. 1 ~ 12. 31)의 종사자수, 출하액, 유 · 무형자산, 재고액 등 16개 항목
▶ 조사방법 : 임시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조사

서부시장 침수위험지구 배수개선사업 용역보고회

시는 서부시장 침수위험지구 배수개선 사업 용역보고회를 오는 6월초 개최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설계에 반영키로 했다.

매년 태풍 및 장마철 집중호우시 상습침수로 인하여 재산과 영업피해가 발생하는 동서동 서부시장 주변에 침수피해 재발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배수개선 대책을 수립코자 올해 3월 10일에 용역비 1억을 들여 서부시장 침수 방지를 위한 배수개선사업(배수펌프장 Q=79,000㎥/일, 관로 L=1.4Km)용역을 착수하였다.

또한 시는 용역이 완료되면 소요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소방방재청을 방문하여 국비 지원을 건의할 계획이며, 이 사업이 완료될 때 서부시장 주변 침수피해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계 침해형 부조리 집중단속

시는 유관기관 · 단체 합동으로 생계 침해형 부조리 단속반을 부시장을 반장으로 10명을 구성하고 5월까지 홍보 및 계도를 마치고 6월부터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이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 편성한 생계 침해형 부조리 범죄가 증가하는 등 민생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어 있어 사회취약계층의 생계와 인권을 침해하는 각종 폭력과 부조리를 근절키 위함이다.

중점단속 사항으로는 금품 · 임금 착취, 과다 소개료, 불법 직업소개, 취업사기, 성 피해, 불공정 계약, 불법 사금융 등이다.

신고는 사천시 생계침해형 부조리 근절 대책반(☎830-4501) 또는 경상남도(☎211-3111), 사천경찰서(☎832-2112)로 하면 된다.

농작업환경개선 보조도구 개발, 농가보급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작업환경개선 보조도구 시범사업으로 2005년에 이어 올해에도 과수 수확 운반용 손수레를 개발하여 관내 60여 농가에 보급하였다.

사천은 단감의 고장으로 과수 재배면적이 넓으며 여성과 노인들이 대부분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경사진 과수원에서 수확물 운반시 기존 운반기는 손잡이를 손과 팔의 힘으로 끌어야 되고 크고 무거워 여성들이나 노인들이 사용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았다. 그리고 무리한 운반작업으로 과수농가의 여성 농업인들은 요통 등 만성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알루미늄을 이용하여 작고 가벼우며 여성들도 쉽게 사용 가능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 그 활용면에 있어 편리성을 인정받아 농촌진흥청이 주최하는 2005 농작업 환경개선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과수 수확 운반용 손수레는 컨테이너박스 두개가 들어가도록 제작되어 경사진 과수원에서 수확물을 운반할 때 적재물이 흔들리지 않아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고 작고 가벼워 매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도구이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수확용 운반손수레 이외에도 과중한 노동으로 농부증을 호소하는 농업인의 노동력 경감을 위해 농작업 보조용 방석, 수확용 앞치마, 순잎 따기 장갑 등을 지속적으로 보급하여 농작업자의 노동부담 경감 및 농작업 피로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계획이다.

2006년 과수원정비사업 신청

농림부에서는 2009년까지 과수산업의 구조조정의 하나로 과수원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시에서도 과수원에 병해충 발생의 원인이 되는 방치과수원 정비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2006년 과수원 정비사업 신청' 을 접수 받고 있다. 농업 · 농촌기본법 제7조(농업구조개선 촉진)에 의거 감, 배, 복숭아 등의 과수원중 방치 및 병해충 발생 과수원, 1/2간벌 과수원을 대상으로 2009년까지 연중 읍면동 사무소에서 접수받고 있다.

대상자는 과수원 소유자 및 부재지주, 노약자 등이 방치한 과수원을 폐원 위임받은 지자체장 또는 작목반. 농협 등 단체이며 지원조건은 절단처리에 40만원/1,000㎡, 굴취, 원상복구 60만원/1,000㎡, 1/2간벌은 절단처리의 50%이다. 이같이 과수원 정비사업은 과실류 수입개방 확대에 대응한 경쟁력이 낮아 폐원을 하고자 하는 과수원에 대해 정비지원을 함으로서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함이다.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시는 시민안전봉사대를 주축으로 한 민 · 관 합동으로 6월 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서동 일대 및 각 읍면동별로 '제123차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날 캠페인에는 전기설비 등의 침수에 의한 감전재해 예방과 침수 · 붕괴 등 발생 시 긴급 안전조치 방법, 여름철 음식물 안전사고 예방 홍보와 아울러 시설물 또는 공사장 등의 침수 · 붕괴 및 전도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전실태 방문 점검 및 정비, 다중이용시설의 안전 및 대피시설 피난 통로 등 비상구 점검, 생활주변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안전표지 설치하기 등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시는 평소 안전에 관심이 있어 참가를 원하는 시민들께서는 해당 읍면동 및 재난안전관리과(☎830-8687)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

자동차세 납부 안내

6월은 2006년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세의무자 여러분이 납부하시는 자동차세는 우리시의 지역발전 및 복지향상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되오니 납기 내 납부하시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납 기 : 6. 16. ~ 6. 31.
▶납부장소 : 가까운 금융기관 및 우체국.
▶납부방법 : 신용카드(엘지) 납부시 시청 세무과 방문납부
▶이의신청 : 자동차세 부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바랍니다.
▶납부경과 후 조치 :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1개월까지는 3%의 가산금, 그 후 매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30만원 이상인 경우)이 추가되며, 자동차 번호판영치, 재산압류, 관허사업제한 및 공매처분 등의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세액
o 승 용 : 배기량 × cc당 세액 × 연식별 경감률 = 연 세액
o 승합 · 화물자동차 : 정액세(6,600~157,500원)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연식별 차등과세 안내
o 2001. 7. 1부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이 되는해부터 매년 5%씩 누증 경감하되 최고 50%까지 경감
o 차등과세대상 : 차령 3년 이상 된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
o 납부세액 : 당해 기분 세액 -〔기분세액×5%×(차령-2)〕
※ 차령별 경감률(차령12년 초과 자동차는 12년으로 봄)

차령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경감률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연식	2004. 1.1~6.30	2003. 6.1~6.30	2002. 6.1~6.30	2001. 6.1~6.30	2000. 6.1~6.30	1999. 6.1~6.30	1998. 6.1~6.30	1997. 6.1~6.30	1996. 6.1~6.30	1995. 6.1~6.30

▶문의처 : 세무과 자동차세 담당자(☎830~4297), 읍면사무소 자동차세 담당자

200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안내

시는 올해 1월 2일부터 5월까지 21만1875필지에 대해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 검증,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지난 5월 16일 사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한 후 5월 31일자 결정 · 공시하였다.

이에 시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은 통지된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나 시청(민원지적과)에 방문,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현지 확인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원인에게 7월 30일까지 통보된다.

특히, 올해부터 주택가격공시제도 도입에 따라 단독주택가격 공시대상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단, 한필지에 일부만 단독주택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단독주택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토록 되어 있다.

또한 통지문 식별 편의를 위해 개별공시지가결정 통지문의 색을 기존 푸른색에서 초록색으로 새롭게 바꾸어 개별주택의 결정 통지문(푸른색)과는 구별되도록 하였으며, 주택은 과표담당 (☎830-4307), 토지는 토지관리담당(☎830-4625)으로 문의하면 된다.

2006 농업인 정보화 교육 교육생 모집

농업인의 농업 · 농촌 정보화 조기정착으로 도 · 농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농업의 경쟁력 확보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06 농업인 정보화 교육' 을 실시하오니 희망 교육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교육기간 : 6. 27 ~ 8. 24
▶교육인원 : 75명(기별 15명)
▶교육시간 : 기별 18시간(1일 6시간×3일)
▶기별 교육 계획

기 별	컴퓨터, 인터넷 교육		농 업 정 보 활 용		
구 분	1기	2기	3기	4기	5기
일 시	6.27~29	7.4~6	8.1~3	8.7~9	8.22~8.24
교육과목	컴퓨터 활용		농업인 정보활용	농업정보 활용	
교육수준	기 초		기 초	심 화	
교육인원	15명	15명	15명	15명	15명
교육장소	서포면 복지회관	농업기술 센터전산 교육장	농업기술 센터 전산실	서포면 복지회관	농업기술 센터 전산실

▶교육생 모집대상
o 컴퓨터 · 인터넷 활용 : 컴퓨터 초보 또는 사용 가능한 농업인
▶문의사항 : 농업진흥담당 ☎830-4782

여름철 장마 및 집중호우 대비요령

□ 장마전 대비는 이렇게
▶**가정에서는** = 우리 집과 주변에 비가 새거나 무너져 내릴 곳이 없는지 사전에 점검보수하고, 낡은 지붕은비닐 등으로 단단히 덮고 묶어서 폭풍우에 날아가지 않도록 합시다. 집 안팎의 하수구는 물론 배수구의 막힌 곳을 정비하고, 오래된 축대, 담장은 넘어질 우려가 없는지 미리 정비하고 위험한 곳은 표지판을 설치합시다.
▶**상습침수지역에서는** = 대피로, 지정된 학교 등 대피장소를 반드시 알아두시고 전화, 확성기 등 통신수단을확보하여 둡시다. 가까운 행정기관의 전화번호는 온 가족이 알 수 있는 곳에 비치하고 이웃간의 연락방법을 강구하여 둡시다.
▶**농촌이나 산간지역에서는** = 배수로를 정비하고 가건물, 비닐하우스 등은 버팀대를 보강하거나 단단히 묶도록 하고 위험한 급경사나 산사태가 날 위험이 있는 곳은 미리 둘러보고 위험이 있는 곳은 접근을 막읍시다.
▶**어촌 및 해안지역에서는** = 수산증양식 시설물을 점검하여 균열, 파손부분은 사전보수하고 어선의 통신장비, 항해장비, 구명장비 등의 기능을 점검하여 유사시 즉각 사용 할 수 있도록 합시다.

□ 집중호우시 행동요령
▶**보행자는** =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우산을 쓰지 말고 전신주, 큰나무 밑은 피하여 낮은 곳으로 가거나 큰 건물 안으로 대피하고 물에 잠긴 도로는 가급적 피하고 조그만 개울이라도 건너지 말고 안전한 도로를 이용합시다.
▶**차량운행은** = 물에 잠긴 도로나 잠수교를 피하여 평소 아는 길로 저단기어로 운행토록 하고 하천변 주차차량은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시다.
▶**농촌이나 산간지역에서는** = 경사도가 30℃이상이면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높으므로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비가 그친 후에도 계속 주의깊게 살펴봅시다.
▶**어촌 및 해안지역에서는** = 선박끼리 부딪쳐 부서지지 않게 고무타이어를 충분히 부착하고 소형선박은 육지로 끌어올리고 어망, 어구는 미리 걷어 피해를 방지합시다.
▶**각종 공사장에서는** = 작업을 중지하고 떠내려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기자재들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도록 하고 굴착한 웅덩이에 물이 들어가는지 무너질 우려가 없는지 확인하여 보강 시설 등 안전대책을 강구합시다. 또한 하천을 횡단하는 공사장에서는 상류지역의 강우량을 지속적으로 파악 수위상승에 대비 차량통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귀중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합시다.

올해 춘계 하천시설물 정비 완료

시는 해빙기를 맞아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파손 및 훼손된 제방과 시설물을 점검하고,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하천시설물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하였다.

지난 3월초 시와 읍면동 합동 점검반을 편성, 국가하천, 지방 2급하천, 소하천 등 총 106개 하천을 점검한 결과 정비가 시급한 15개 하천에 대하여 2006년도 춘계하천시설물 정비대상지로 선정, 총 2억500만원을 투입하여 지난 5월초 정비를 완료하였다.

정비실적으로는 하상정비 2,700m, 퇴적토 준설 6,000㎥, 유수 지장목 제거 및 풀베기 10,200m, 석축기초보강 및 호안정비 300m를 정비하였다.

또한 무고 및 와룡지구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묵곡 및 무고지구 하도 개선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등 올해 하천정비 사업으로 총 15건, 51억1400만원을 투입하여 항구적인 하천정비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은 우수기전 사업완료 계획으로서, 수해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 위한 우리문화 적응교육

사천시 여성단체협의회(회장 오춘자)에서는 여성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행복한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우리사회의 조기적응을 돕고자 우리문화 적응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일정

일정	교 육 내 용	교 육 장 소
6월	ㅇ한글 익히기(4회) ㅇ한국요리 배우기(1회)	종합사회복지관 (벌리동 소재)
7월	ㅇ한글 익히기(4회) ㅇ상담교육(1회)	〃
8월	ㅇ한글 익히기(4회)	〃
9월	ㅇ한글 익히기(4회) ㅇ한국요리 배우기(1회) ㅇ우리가락 배우기(1회)	종합사회복지관 삼천포농악전수회관
10월	ㅇ한글 익히기(4회) ㅇ지역문화탐방(1회)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유적지
11월	ㅇ상담교육(1회) ㅇ가족간담회(1회)	종합사회복지관

※『한글익히기』: 매주 목요일(10:00 ~12:00) 예정

▶기타 문의사항 : 사회복지과 여성복지담당 (☎830-4359)

3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자 접수

시는 오는 6월 5일부터 13일까지 신청일 현재 만18세이상 만60세 이하의 실업자나 일용근로자(만65세 이하자도 신청가능-선발시 후순위 적용) 등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된 읍면동사무소에서 '2006 3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자'를 접수한다.

제출서류는 공공근로사업 신청서(읍·면·동사무소비치)와 신청자 본인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 구직등록표(읍·면·동사무소 비치)이다.

배제자로는 실업급여 수급자, 1가구 2인 이상 신청자,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대학재학생, 정기소득이 있거나 그 배우자, 전업농민이나 그 배우자이다. 선발기준은 연령, 재산상황, 가구주 여부, 부양 가족수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사천시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다. 사업기간은 오는 7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이며 사업비 8600만원으로 선발예정 인원은 40명 내외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사무소 또는 지역경제과 노정담당(055-830-4509)으로 문의하면 된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 보훈 가족에게 명예와 자부심을

나라 위해 몸 바친 국가유공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듭시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6월을 맞이합시다.

「6월 6일은 51돌을 맞는 현충일입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게 꽃 한 송이 바치는 마음을 가집시다.」

▶조기게양 방법

ㅇ게양시간 : 07 : 00 ~ 18:00

ㅇ 깃봉에서 깃면 너비만큼 내려서 게양

ㅇ 집밖에서 보았을 때 대문(공동주택은 앞 베란다) 왼쪽에 게양

구직희망 고령자 취업교육비 지원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와 조기퇴직 풍토 확산으로 구직 희망 고령자에 대한 교육·훈련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어 취업 교육비를 지원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기간은 6개월간이며 대상인원은 19명으로 지원대상은 55세 이상이다.

신청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며 1인당 최고 지원액은 48만원으로 구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취미분야 등은 제외한다.

문의/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830-4353)

다례교실 운영

시는 차 생산에서 마시는 예절까지 체계적인 교육으로 전통차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와 차문화를 정착시키고 웰빙 생활을 위한 다례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다례교실은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월 2회 전문강사와 생활지도사의 강의, 실습과 이론교육을 토대로 차의 효능 및 종류와 역사, 다례 및 다식 실습을 교육희망자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희망자 수요조사는 6월 20일까지이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다.

문의/☎830-4781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2차 피해신고 접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일제 강점하(만주사변~태평양전쟁) 시기에 강제 동원되어 국내·외에서 군인·군속·노무자·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사항을 신고·접수하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코자 한다.

▶기간 : 6월 30일까지(공휴일 제외)

※ 이번 2차 접수가 특별법상 마지막 피해신고임.

▶신고대상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된 자

ㅇ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으로 인한 사망자·행방불명자 또는 후유장애자 및 생환자

▶신청 및 신고자격

ㅇ 일제강점하 강제동원된 자

ㅇ 강제동원된 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친족관계 :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신고시 제출서류

①신고서 1부 ②신고인의 신분증

③피해자의 창씨개명 제적등본

④피해자와 신고인과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⑤신고사유 소명 증빙자료나 인우보증서 1부

⑥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의 진료기록 또는 장애 판정 기록 등

▶신고서 접수처 : 시청 삼천포청사 2층(☎830-4455~6)

농기계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 농기계는 도로교통법상 단속대상이 아니며 특별한 면허규정이 없어 운전자 스스로가 안전수칙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음주 후 농기계를 운전하지 마세요.

♣ 올바른 농기계 사용법과 취급법을 꼭 알아두세요.

♣ 긴소매 옷이나 큰 장갑 등은 회전 부위에 말려들 수 있기 때문에 상해 방지용 모자와 작업에 맞는 옷과 신발을 착용합시다.

♣ 경운기 후미등, 방향지시등 및 야간 반사판 등화장치 부착상태를 확인 합시다.

♣ 기계에는 어린이를 태우거나 접근을 금지하세요.

♣ 엔진이 뜨거운 상태나 운전중에는 급유 하지 마세요

♣ 야간도로 주행시 등화장치(전조등, 방향지시등, 작업등, 제동등) 반드시 확인하세요.

♣ 운전석에서 내릴 때는 반드시 엔진을 끄고 주차브레이크를 채우고 어쩔수 없이 경사지에 주차할 경우 받침목을 고여 둡시다.

♣ 기계를 싣거나 내릴 때에는 평탄하고 안전한 곳을 이용하세요

♣ 두렁이 높은 곳에 출입시 반드시 미끄럼 방지판을 사용하고 전복추락 등에 주의합시다.

♣ 비상시를 제외하고 운행중에 기계에 뛰어오르거나 내려서는 안됩니다.

♣ 작업기 밑에 머물거나 발을 넣으면 위험합니다.

보 건 알 림 방

결핵환자 조기발견 사업 안내

보건소에서는 결핵환자 조기발견과 조기 예방사업을 위한 결핵관리 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해마다 200만 여명이 결핵으로 사망하며 2000~2020년 사이에 결핵관리가 강화되지 않으면 3,500만명이 결핵으로 사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핵의 전염은 활동성 폐결핵 환자의 비말을 통한 공기 매개감염으로 전파되는 위험한 만성병의 일종이다.

▶결핵의 임상적 소견

ㅇ 결핵은 전신 감염증으로 감염 부위에 따라 임상증상 다양함

ㅇ 2주 이상 지속적인 기침과 발열, 전신피로감, 식은땀, 체중감소, 가래 등

ㅇ 폐결핵 의심 : 혈담, 각혈, 흉통, 심한 경우 호흡곤란 증상을 보일 경우

ㅇ 감기약을 먹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결핵 검사 방법 : 흉부 X-선 사진, 객담도말 및 배양검사

▶결핵 검진 및 치료

ㅇ 결핵증상으로 본인의 건강이 의심되시는 분은 보건소 결핵관리실로 방문하여 결핵검사와 전문의 상담을 반드시 받아 보시길 바란다.

ㅇ 결핵검사와 치료비용은 무료이며 개인 신상비밀은 꼭 지켜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 결핵관리실로 문의 바랍니다. 보건관리과 ☎830-8747, 보건위생과 ☎830-4471

'수두' 무료예방 접종 실시

수두는 2005년부터 제2군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예방접종이 의무화되었다.

수두 예방 접종 대상자는 생후 12~15개월의 모든 건강한 소아, 과거에 수두를 앓은 적이 없거나 예방 접종력이 없는 경우로 접종비용은 무료이며 접종시기는 연중실시로 평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이며 보건소(보건관리과, 보건위생과, 보건지소)에서 접종한다.

수두예방법으로 수두는 전염력이 높기 때문에 집단수용시설, 유치원, 학교, 병원에서 전염이 확산 될 수 있으므로 집단발병 방지를 위하여 환자는 수포 발생(물집)후 6일간 또는 딱지가 가라앉을 때까지 가정에서 안정 가료해야 한다.

수두의 감염경로는 말하거나 재채기 할 때 나오는 비말, 피부 병변과 접촉하여 감염된다. 외출 후엔 반드시 손발을 씻고 양치질하기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개별 감염을 예방한다. 수두를 앓은 적이 없거나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소아는 예방접종을 반드시 받도록 한다.

기타 예방접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로 문의 바란다. 보건관리과 ☎830-8769, 보건위생과 ☎830-8477

둘째자녀 이상 출산가정 도우미 파견

보건소에서는 둘째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가사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모·신생아 도우미 파견 사업을 실시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출산 예정일 60일 전부터 도우미 파견 희망 1주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 130%이하의 둘째자녀 이상 출산가정으로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초산 가정도 지원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정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해산급여로 대체)된다.

지원내용은 산후 60일 이내에 가정 방문서비스 제공하고 지원기간은 2주(10일), 월~금(09:00~18:00)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830-8769 문의하면 된다.

불법마약류 추방과 에이즈예방 캠페인

시는 지난달 12일 오후 2시 삼천포 공설운동장에서 '제11회 와룡문화제' 시민 건강증진관 행사장 앞에서 범시민 불법 마약류 추방 및 AIDS 예방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이날 본 행사장에는 관련 시민단체자원 봉사자와 사천시 의사회, 약사회 및 병원, 약국 대표와 시민 등 80여명이 동참하여 뜻깊은 캠페인 운동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불법 마약류 추방 및 에이즈예방 캠페인'은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마약류의 유통행위 근절로 불법마약류의 접촉과 사용 위험으로부터 개인과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보건소 주관으로 행사를 실시하였다.

지구촌 세계화로 인한 국내 에이즈환자 유입예방과 확산방지로 국가 에이즈 예방 추진 대책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에이즈 예방 캠페인도 병행 실시하여, 캠페인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한편 보건소는 앞으로도 시민건강과 건전사회 조성을 위한 불법 마약류 추방 및 에이즈 예방 범시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시민 여러분의 불법 마약류 추방과 에이즈 예방 범시민운동에 적극적인 동참과 참여를 당부 드리고 있다.

민방위 포스터·수필 현상 공모

민방위대 창설 제31주년을 맞아 민방위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민방위 포스터·수필을 공모하오니 뜻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응모자격 : 일반부(대학생 포함 일반인), 수필(초·중·고등학생)

▶공모부문 : 포스터·수필 부문 (동시 응모가능)

▶작품주제

ㅇ 포스터 부문 : 일상생활에서 재해·재난에 대처하는 생활민방위의 필요성과 역할 강조, 민방위 활동상을 알려 국민에게 친근한 인식을 줄 수 있는 내용

ㅇ 수필 부문 : 민방위활동, 안전관리 사례, 재해·재난 대처 경험 등 안전관리 인식을 강화하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내용

▶규격 또는 분량

ㅇ 포스터 : 지질과 색도의 제한 없이 2절지 이내의 규격

ㅇ 수필 : 200자 원고지 18매 내외 또는 A4용지 4매(신명조 12, 줄간격 160%)

▶접수기간 및 방법

ㅇ 접수기간 : 6월 20일까지(우편은 6월 20일자 소인 유효)

ㅇ 제출방법 : 시청 재난안전관리과(본인이 직접 또는 우편 제출)

▶공모편수 및 시상내역

구 분		시			경 상 남 도			소 방 방 재 청		
		인원	시상내역(시장)		인원	시상내역(도지사)		인원	시상내역(소방방재청장)	
계		12	일반	학생	12	일반	학생	6	일반	학생
포스터	최우수	2	상장	상장	2	상장	상장	1	상장 및 상금 200만원	상장 및 상금 100만원
	우수	2	상장	상장	2	상장	상장	2	상장 및 상금 100만원	상장 및 상금 50만원
	장려	2	상장	상장	2	상장	상장			
수필	최우수	2	상장	상장	2	상장	상장	1	상장 및 상금 100만원	상장 및 상금 50만원
	우수	2	상장	상장	2	상장	상장	2	상장 및 상금 50만원	상장 및 상금 30만원
	장려	2	상장	상장	2	상장	상장			

▶기타사항

ㅇ 당선작 발표는 개별통지(8월말)하고, 응모작품은 9월 1일부터 20일에 신청을 받아 반환함.

ㅇ 당선작은 원작의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작할 수 있음.

ㅇ 기타 문의 사항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www.nema.go.kr), 도 홈페이지(www.gsnd. net), 도 민방위재난관리과(☎055-211-4655) 또는 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 또는 시 재난안전관리과 민방위업무 담당부서(☎830-4687)로 문의하시기 바란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내

다음 지역에 대해 부동산을 거래할 시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하셔야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구 분	위 치	면적(㎢)	지정기간
계	2개면 7개리	16.728	
신청사 건립	용현면 덕곡리 전역	2.423	'04.11~'07.12.31
신청사 건립주변 택지개발예정지구	용현면 송지·구월·금문리 일원	0.325	〃
기업도시 후보지	축동면 사다·탑·반용리 전역	13.98	'05.6.7~'08.6.6

▶취득요건 및 유의사항

ㅇ 요건 : 토지 매입 시점 1년 이전에 우리시에 주소(가구원 전원)가 되어 있어야 함.

ㅇ 유의사항

① 토지 취득 자금 조달계획 제출의 의무화

② 의무기간 강화 : 농지 6개월 →2년, 임야 1년→3년, 개발사업용 6개월→4년, 기타 6개월→5년

③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치 않을 시는 매년 취득 가액의 10%이내의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

▶토지거래 허가 대상 면적 기준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를 초과하는 토지
	상업지역	200㎡를 초과하는 토지
	공업지역	660㎡를 초과하는 토지
	녹지지역	100㎡를 초과하는 토지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90㎡를 초과하는 토지
도시지역외의 지역	농지	500㎡를 초과하는 토지
	임야	1,000㎡를 초과하는 토지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하는 토지

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이란 =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지가 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 부동산 투기방지를 '90년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경제사정으로 2002년 부과중지 되었으나, 지난해8.31 부동산 정책으로 금년 1월1일부터 다시 부활한 제도이다.

▶개발부담금 사업 종류

① 택지개발사업 ② 공업단지조성사업 ③ 관광단지조성사업

④ 도시환경정비사업 ⑤ 유통단지조성사업 ⑥ 온천개발사업

⑦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 및 화물터미널 사업 ⑧ 골프장 건설사업

⑨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⑩ 기타사업

※ 부과대상사업은 개별법에서 열거되어 있고, 감면?면제는 따로 규정하고 있다.

▶부과면적

ㅇ 도시계획 구역 내 : 990㎡(300坪)이상

ㅇ 도시계획 구역 외 : 1,650㎡(500坪)이상

▶부과율 : 개발이익의 25%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의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실시한다.

부동산등기법 개정으로 6월 1일부터 부동산거래시 실거래가 가액을 등기부에 기재하게 된다.

▶신고대상 :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 계약서를 작성한 때

※ 판결·교환·증여·신탁/해지, 분양권 매매는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에서 제외(다만, 검인은 필요)

▶신고의무자 : 거래 당사자 및 중개업자

※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는 반드시 중개업자 신고

▶신고기간/과태료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30일 경과하면 과태료를 취득세의 3배 이하 부과함.

▶인터넷 신고안내 : 인터넷 주소 :http://rtms.sacheon.go.kr/

※ 인터넷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할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보유하여야 함.

▶실거래가 위반/불법중개업소 신고 안내

ㅇ 인터넷 : 사천시청홈페이지→시민참여→신고센터→부동산불법 금지행위

ㅇ 전자우편 : freeange@4000.net

ㅇ 우편 : 사천시 벌리동 427-1 사천시청 (민원지적과) 우. 664-701

고유가시대, 에너지 절약으로 극복합시다

▶냉장고 문의 여닫는 횟수를 줄입시다 = 냉장고 문을 열면 냉기가 빠져나가 더운 공기가 들어가게 되고, 내부전등도 켜져 전력 소모량이 커진다. 실험 결과 500 용량의 냉장고 문을 닫아놓을 때 80W의 전력이 소비되다가 문을 여는 순간 전력소모량은 200W나 된다.

▶냉장고의 음식물을 가득 채우지 맙시다 = 냉장고 내 음식물 용량은 60%정도가 적정하며, 여기서 냉장고 내에 음식을 10% 증가시키면 전기소비량은 3.6%가 증가하고 3일 이상 장기간 여행을 떠날 때는 냉장고 내 음식을 미리 꺼내서 정리하고 전원 플러그는 뽑아 놓자.

▶가급적 선풍기 사용 = 여름철 전력수요가 폭증하는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는 에어컨 사용을 자제하고 일정시간마다 잠깐씩 에어컨을 끄고 선풍기를 사용해 연속 냉방효과를 이용하자.

▶압력밥솥 사용 = 가스 압력밥솥으로 밥을 지으면 전기밥솥에 비해 전력이 60~70%가 절약되고 취사 시간도 20~30분 단축된다.

▶수돗물을 아껴 쓰고 재이용 = 물을 틀어놓고 양치질이나 면도를 하면 30초마다 6 의 수돗물이 낭비된다. 수도꼭지에서 한방울씩 떨어지는 물도 하루 65 , 한달이면 2t이나 된다. 절수 수도꼭지, 절수 샤워기 등 절수기기를 사용하면 평소 물 사용량의 10~30%를 절약할 수 있다.

▶다림질은 모아서 = 다리미를 자주 사용하면 에너지가 낭비된다. 옷감은 두꺼운 종류부터 얇은 순서로 다리는 것이 에너지절약의 지혜이다. 전기수요가 많은 피크타임에는 다리미 사용을 자제하자.

▶컴퓨터를 쓰지 않을 때는 꺼둡시다 = 10분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을 꺼두는 것이 좋다. 모니터와 본체의 절전기능이 있는 경우 절전모드로 설정하면 효과적이다. 프린터, 스피커, 스캐너 등 부속기기는 사용할 때만 전원을 켜주자.

▶사용치 않는 조명은 반드시 소등 = 빈방 등 쓰지 않는 곳과 외출시에는 반드시 소등을 확인하자. 한달에 한번쯤 등과 반사판을 깨끗이 닦아주면 훨씬 밝아진다.

▶대중교통 이용 = 가급적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고 장거리 여행은 가능하면 열차나 고속버스를 이용하자.

▶가까운 거리는 도보나 자전거 이용 = 우리나라 운전자들은 선진국보다 두배 이상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고 있어 상습적인 교통체증 원인이 되고 있다. 승용차의 연간 평균 주행거리는 이웃 일본의 두배에 이르고 있다. 연간 주행거리를 10%줄이면 21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승용차 10부제에 참여 = 10부제에 참여하면 연간 13만원의 연료비가 절약된다. 우리나라 승용차 7백95만대가 모두 참여하면 연간 1조6백71억원을 절약할 수 있다.

▶서서히 출발하고 서서히 정차 = 교통흐름을 미리 파악하여 서서히 출발하고 정차하자. 급출발 10회에는 100cc, 급가속 10회에는 50cc의 연료가 소모된다. 급정차를 하게되면 주행탄력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만큼 손실을 보게 된다. 급출발, 급가속을 1일 5회씩 줄이면 연간 3만원이 절약된다.

▶엔진 공회전을 하지 맙시다 = 자동차가 주유중이거나 3분 이상 정차 할 때는 꼭 시동을 끄자. 신호대기시나 정체가 심할 때는 시동을 끄자. 10분동안 공회전을 할 경우 자동차 한 대당 200cc의 연료가 낭비된다. 불필요한 공회전을 하지 않으면 연간 약 4만원을 아낄 수 있다.

▶불필요한 짐을 싣고 다니지 맙시다 = 자동차의 중량은 연료소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가능한 차량중량을 증가시키는 불필요한 물건은 싣고 다니지 말자.

▶경차 이용 = 같은 연료량으로 경차는 대형차 주행거리의 2배 이상을 운행할 수 있다. 경차 이용은 가계부 흑자 만들기의 일등공신이다. 경차를 구입하면 우선 차값이 싸서 좋고 유지비용도 적게들 뿐 아니라 각종 혜택도 다양하다. 주차 및 교통난 해소에도 효과가 있다. 경차는 소형차와 대비하여 연간 연료비 34만원이 절감된다.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 영광의 얼굴

도지사

김태호 (43세)

경력:거창군수, 경상남도지사

도의원

제1선거구

김주일 (58세)

경력:사천시 총무국장, 사천시 지역개발국장

제2선거구

박동식 (48세)

경력:사천시 축구 협회장, 경남도의원

시의원

<지 역 구>

김기석 (59세)

경력:사남 농협 조합장(3선), 시의원

제갑생 (63세)

경력:사천 농업기술센터27년, 사천시 자활후견기관 실장

최인환 (60세)

경력:삼천포시의회 전문위원, 사천시 공보실장

김석관 (54세)

경력:우체국 근무, 제4대 사천시의원

진삼성 (58세)

경력:시의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천시지부장

이문상 (58세)

경력:새마을문고사천시지부회장, 사천시의원

이삼수 (47세)

경력:사천시의원, 사천시생활체육협회장

김현철 (51세)

경력:사천시의용소방연합회 회장, 사천시2,3,4대의원

<비 례 대 표>

최갑현 (47세)

경력:삼천포청년회의소 회장, 시의원

탁석주 (52세)

경력:삼천포중앙라이온스클럽회장, 사천시향촌동주민자치위원장

김유자 (63세)

경력:사천시청근무(가정복지과장·시민과장·정동면장), 한국부인회 사천시지회 회장

이정희 (45세)

경력:민주노동당 사천시위원회 위원장, 민주노동당 중앙위원

※ 순서는 지역구 가나다 순임

사천시보가 전하는 전국향수동정

1. 각 지의 축제행사장에서 <사천삼천포에 가보자>홍보

경기이천과여주도자기박람회, 고성공룡 세계엑스포, 부산 하프마라톤에서

애향운동<사천삼천포에 가보자>운동본부는 전국의 여러 행사장과 축제장에서 홍보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오전 9시 구름이 약간 낀 듯 뛰기 좋은 날씨에 낙동강의 최남단 하구지역인 부산 다대포해수욕장 입구를 출발하여 철새들의 낙원 을숙도의 낙동강하구언을 건넜다가 돌아오는 국제신문 주체 부산하프마라톤대회에서 우리 고장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알리는 '가보자' 플래카드를 붙이고 홍보하며 유진길, 김윤곤, 이몽래, 권정기 향우 등 여러 향우들이 출전 완주하였다.

또 4월 14일부터 6월 4일까지 우리 고장 이웃인 경남 고성군에서 개최되는 공룡세계엑스포 행사장 일대와 이곳으로 행하는 고속도로변에 전국에서 오는 관람객을 상대로 '축! 경남고성 공룡세계엑스포, 아름다운 고장 <사천삼천포에 가보자>' 라고 붙이고 홍보하고 있다.

이웃 고성군은 묻혀져 있는 듯 한 세계적인 희소가치가 있는 귀중한 소재를 잘 개발 활용하여 공룡세계엑스포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 행사를 준비하는 동안 여러 나라와 전국의 많은 대도시에서 경남 고성 공룡엑스포행사를 계속 홍보하여 왔다.

그 동안 경남 고성군이 전국에서 전혀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지역이었지만 이 행사를 계기로 이 지역을 알리는데 상당한 지역홍보효과가 있을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4월 21일부터 5월 14일까지 경기 이천시 설봉공원 및 도예촌일원에서 개최되는 제20회 경기 이천도자기축제와 같은 기간에 이웃인 경기도 여주군에서 개최되는 제18회 경기도 여주도자기박람회 축제에서 우리 지역의 섬과 다리, 아름다운 바다경관을 자랑하며 <사천삼천포에 가보자>고 홍보하고 있다.

경기 이천도자기 축제는 금년이 20회째로 '혼의 축제 20년, 천년의 꿈' 으로 주제를 달고 제20회 이천도자기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두 곳의 도자기축제는 해마다 외국관광객과 전국의 관람객들이 도예작업 , 불붙이기 등 을 구경하고 직접 경험하는 등 수십만명의 관람객이 오는 경기도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이다.

2. 용산초등학교총동창회 '2006년 용산인의 날'

지난 4월 30일 일요일 날씨 쾌청하고 아주 따뜻한 봄 날, 사천시를 비롯하여 부산, 서울, 창원, 울산, 진주 전국의 동창들이 만나는 날로 삼고 1,000여명의 용산 사람들이 버스를 전세 내어 타고 또는 자가용 승용차편으로 전날 밤부터 고향 뜰 모교에 모여들었다.

'2006년 용산인의 날' 로 명명된 이날 행사에 여기 저기서 많이 모여와 학교 운동장이 비좁을 정도로 비비고 않아 옛날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며 술잔을 기울였다. 그리고 각 기별로 재미있는 게임이랑 과 달리기며 줄당기기 등 여러 가지 체육행사로 모두들 웃고 즐기게 하루를 지냈다.

3. 삼천포고등학교 총동창회 정기총회 '동문 한마당큰 잔치'

개교 56주년, 모교 교정에서 신임회장 최학림 동문 선출

삼천포고등학교 총동창회는 지난달 14일 벌리동 모교 교정에서 총동창회 정기총회 '동문 한마당 큰 잔치' 행사를 가졌다.

금년이 개교56주년 되는 해로 제24회 동기회(회장 김재원)가 주관기수로서 행사준비와 진행을 하였다.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문 선후배들이 한데 모여 현숙, 하동진, 이혜리 등 여러 가수들을 초청해 한바탕 어울려 노래잔치 마당을 베푸는 가운데 동문 선후배 동기들이 즐겁고 재미있는 하루를 보냈다. 원정부 직전회장과 작년도 총회 주관회장인 23기 동기회장에게 공로패가 전달되었고, 이임하는 한창일 회장에게 모교 구이본교장의 감사패가 수여되었다.

그리고 2006년 총회를 맞아 처음으로 '자랑스런 삼고인상' 시상에 천봉근 재부 삼고총동문회 창립회장(18회)이 '2001년 11월 재부 삼고총동문회를 창립하여 운영한 공로와 애향운동<사천삼천포에 가보자>운동을 발안하여 전파하고, 전 국민을 상대로 우리고장 관광홍보활동을 추진해 온 공로' 로 추천되어 이날 상패를 수여했다.

※ 지방자치제 선거관계로 5월의 재경 곤양향우회 총회는 용산가족공원에서 6월 10일(토요일)로 연기, 재경 서포향우회 총회는 6월 18일로 연기 용산가족공원에서 개최 예정이다. 그리고 그 외도 많은 모임들이 개최를 연기하였다.

찾아가는 봉사 실천한 순천청암대학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순천청암대학 간호, 보건, 복지계열 재학생들이 지난달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곤양농협 2층 회의실에서 사천시 서부3개면(곤양, 곤명, 서포)거주 65세 이상 노인 30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날 학생들은 물리치료, 시력검사 및 돋보기 증정, 혈압/혈당측정, 염색 및 퍼머, 컷트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순천청암대학은 사천지역에 사회복지과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1학년 45명, 2학년 80명이 재학 중에 있으며 이번 행사

가 지역 교류의 기반조성 및 어른신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하였다.

시정 밖 소식

▣ 사천교육청, 학부모 정보화 교육

경상남도사천교육청(교육장 류명철)은 지난달 25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동지역 초·중학교 학부모 300명을 초청하여 '자녀와 함께 하는 건강한 U세상' 을 위한 학부모 정보화 교육을 가졌다.

정보화 교육은 교육인적자원부와 정보통신부의 후원으로 KT문화재단과 (사)학부모정보감시단에서 주최하고 경상남도사천교육청에서 주관하였다. 교육내용은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지식의 발전은 새로운 통신과 방송의 융합으로 맞이하는 유비쿼터스의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의 건강하고 안전한 디지털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부모에게 인터넷의 활용 및 역기능 대처 방안, 자녀지도 방법, 온라인 게임의 재미와 영향 등 정보화 사회의 학무보의 역할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 사천소방서, 축사화재 예방 소방안전점검 실시

지난달 15일부터 12일간 사천시 관내의 축사시설 32개소(돈사(1천두 이상) 6개소, 계사(1만마리 이상)4개소, 우사(백마리 이상) 22개소)에 대하여 특별 소방안전점검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축사화재의 주요 원인은 난방용(열풍기, 분만유도 보온용 열전구) 기구와 24시간 가동되는 환풍기 등의 과열, 노후된 전선과 축사내 미세먼지(분진)등과 소방대의 출동이 어려운 산간지역에 축사가 위치한다는 점과, 주변 소방용수의 부족, 동과 동사이의 협소한 거리등으로 2차적 피해를 더욱 키운다는데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이런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축사주변 간이저수조의 설치권장과 화재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하며 노후된 전선교체와 먼지제거로 축사 청결 유지와 적정 대수의 소화기 비치와 화재초기시 소화기를 이용한 화재진압 요령과 대처방법 등을 교육하였다.

▣ 경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 일정과 장소 본인 선택제 안내

징병검사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병역의무 자율이행 풍토 조성을 위하여 본인이 직접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여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징병검사 본인선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오는 6월 5일부터 11월 24일까지 2006년도 징병검사대상자(1987년생 남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징병검사기간 중 검사를 희망하는 날 5일전까지 선착순 마감이다. 문의는 경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 ☎279-9233~4와 병무청 홈페이지 www.mma.go.kr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 진주보훈지청,『제8회 보훈학술논문공모』

보훈이 국가의 주요한 정책분야로 자리잡고 보훈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는데 기여하기 위해 일반 국민은 물론 대학(원)생과 초·중·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국가보훈사업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 줄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다.

접수기간은 8월 18일부터 9월 22일까지이며 응모자격은 대학(원)생, 일반인, 교사이다. 응모주제는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계승·발전 분야, 보훈 보상·복지·의료 향상 개선 분야, 제대군인 지원정책 강화 분야, 미래지향적 보훈정책(제도, 조직 등) 개발 분야이다.

▣ 사천수도서비스센터 수돗물 노면누수 신고 포상제 실시

사천시지방상수도의 유수율 제고와 우리 모두의 귀중한 자원인 수돗물 낭비를 막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수돗물 노면누수 신고 포상제를 도입하고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급대상은 수돗물 노면누수를 발견하고 그 사실을 사천수도서비스센터(1577-0600)에 최초로 신고한 사람으로 하며, 옥내 누수이거나 각종 용역 업무 또는 공사 현장에서 관계자가 신고할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포상금은 누수지점 확인을 위해 현장 출동한 직원이 신고자에게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직접 전달하기로 해 신고자의 포상금 수령 불편을 없애기로 했다.

▣ 근로복지공단, 2006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실시

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에서는 신청서 접수일 현재 1~14급의 장해등급을 받고 요양 종결한 60세 미만의 실직중인 산재근로자 및 산재근로자를 1년 이상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2006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을 실시한다. 지원분야는 직업훈련비용(1인당 130만원이내 수강료, 실습비등), 재활스포츠비용(1인당 10만원이내 최장 3개월간지원), 자립점포임대(전세7,000만원이내 점포로 1.2년 단위), 직장복귀지원금(월 639,000원~426,600원을 12개월간 지원-사업주에게 지원)이다. 접수기간은 연중 수시(예산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이며 문의는 ☎760-0172~3이다.

▣ 운전면허취소처분자 특별교통안전교육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6월 1일부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고 면허시험에 재 응시하는 사람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6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면허 신규취득자와 재 취득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3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한 것으로 면허 취소사유에 따라 음주반과 법규반으로 나뉜다. 운전면허를 재 취득하려는 사람은 기능시험 응시 전까지 교육비 24,000원을 내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장은 전국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시·도지부 교육장에서 받으실 수 있다. 경남 교육장은 팔룡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육관련 문의 전화번호는 ☎270-6114번이다.

▲멀리 와룡산이 보이는 삼천포공설운동장 입구 차 없는 거리에서 마술, 승마, 관악, 농악, 버디퍼포먼스, 소고춤 등 거리路 한마당 행사가 제11회 와룡문화제 행사의 화려한 막을 올리고 있다.

제11회 와룡문화제

성황리에 마쳐

'함께 하는 문화축제'를 기치로 지난달 11일 개최한 '제11회 와룡문화제'가 지역민들과 관광객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달 11일 오전 11시 성황당 산성에서 서제를 시작으로 개최된 와룡문화제는 전시, 공연, 경연, 체험 등 7개 분야 49개 종목에 걸쳐 다양하고 이채롭게 치러졌으며, 지역민을 비롯한 외래 관광객 등 모두 6만여명의 관람객들이 행사장을 찾아 풍성한 결실을 맺었다.

행사 첫날, 처음으로 시도됐던 '거리 路 한마당'에서는 2천여명의 지역민들이 운집한 가운데 발리댄스, 거리마술, 농악, 관악, 정지 마임 등 다양한 퍼포먼스가 선보여 이색적인 눈길을 끌었으며, 이어 개제식과 불꽃놀이, 축하공연 등이 펼쳐진 열림한마당에서는 5천여명의 관객들이 참여해 열광적인 무대를 연출했다.

둘째 날인 12일부터는 공설운동장내 체험행사장이 문을 열어 30분당 4백여명의 관람객이 찾는 많은 인파가 몰려 점핑클레이어 등 일부 체험행사장이 인파로 인한 재료부족으로 조기 마감하는 사태가 벌어져 집행부를 당혹스럽게 하기도 했다.

특히 전통혼례 재현장에서는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결혼식을 하지 못한 부부 한 쌍을 3백여명의 하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실제 전통 혼례를 치러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문화제 3일째인 13일에는 3D 영상체험을 비롯한 이동천문대를 이용한 별 보기, 에어돔 천체 가상체험 등 '별나라여행' 행사장에는 4천여명의 관람객들이 참여해 와룡문화제의 인기 행사임을 실감케 했으며, 마지막 날인 14일 시민노래자랑에서는 1천5백여명의 관객들이 참여해 와룡문화제의 대미를 장식했다.

이밖에도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전국수궁가경창대회 등 경연행사와 무용공연, 열린무대 등 각종 행사장에 많은 관람객들이 몰려 어느 행사보다도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편집자주

◀이평식 부시장의 개회축사와 와룡제 축하 타북행사에 이어 열림한마당 행사에 많은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록 밴드 크라잉 넛이 초대되어 학생들로부터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공연을 했다.

◀전통혼례식을 실제로 치르고 부부의 연을 맺었으며, 전통혼례 시연에 참가한 예비부부에게는 즐거운 추억과 함께 박동선 문화원장이 기념으로 선물을 증정하기도 했다.

◀문학의 밤 행사에 안도현 시인이 참석, 강연회를 마치고 행사에 참석한 시민, 학생들에게 사인을 해주고 있다.

◀실버장기자랑대회에 참가한 한 노인분이 웃옷을 벗고 건장한 체력을 과시하고 있다.

▲전국판소리 수궁가 경창대회

▲삼천포체육관에서 열린 시민노래자랑 대회에서 참가한 시민들이 열띤 경쟁을 치렀다. 재치 있는 사회로 참석한 시민들의 어울림의 장이 펼쳐졌으며, 특히 초등학생의 트로트 노래 순서에서는 색다르게 앵콜을 부르는 장면도 연출되었다.

▲각종 체험행사 및 전시회

'비룡 날갯짓 와룡산 수놓다'

만물이 초록물감을 풀어놓은 듯 신록의 계절 5월이면, 와룡산에는 연분홍 향연이 펼쳐진다. 여기저기서 피어오른 철쭉꽃이 군락단지를 이루면서 아름다움을 한껏 자아낸다. 늦봄을 아쉬워하고 여름 오기를 시샘이라도 하듯, 물 오른 철쭉꽃이 와룡산을 뒤덮으며 눈부심을 빚어낸다. 연분홍 철쭉꽃 향연은 불그스레한 홍조를 머금으면서 절정에 달한다.

나 질펀하지 않고 가족적인 분위기를 자아내 친밀감을 불어넣기도 했다.

특히 전야제 행사인 캠프파이어와 한마당잔치 때는 정겹고 화기애애함이 물씬 풍겨 났다. 여느 축제같이 그럴 듯한 유명 연예인을 초청해 그들만의 잔치를 벌인 게 아니라, 관내 장기가 있는 남녀노소 누구라도 참여해 에어로빅과 노래, 춤을 곁들여 흥을 돋웠다. 그

500여명 참가 화기애애 축제 · 산행, 친목 건강 다져

이럴 때면 철쭉을 벗하고, 취하고, 탐하는 잔치가 벌어진다. 와룡산 비룡제다. 올해로 28돌을 맞은 이 와룡산 꽃잔치에 전국의 산악인 500여명이 몰려들어 명산의 정기를 받으며 자연의 흥취에 젖어 친목과 건강을 다졌다. 지난 5월 13일 산신제와 축제 한마당을 시작으로, 그 다음날인 14일 등산대회를 가짐으로써 명산 와룡산의 봄을 흠뻑 만끽했다.

이번 비룡제는, 비록 지역축제였지만, 참가자들의 지역 분포가 전국적이었다. 지역 산악인을 비롯, 청와대, 기획예산처, 검찰청, 강원도, 충남, 전북, 전남 등 경향 각지의 산악인들이 '하늘을 나는 용' 잔치에 모였다. 이는 사천시청 산우회에서 전국 공무원 산악회 회원들을 초청한 노력에 힘있는 바 크다 하겠다. 이처럼 지역축제가 전국 단위로 커졌으

러니까 부담 없고 마음 편한, 그래서 자연스레 어우러지는 한마당 잔치가 된 것이다. 외지 참가자들은 '아담한 도시에서 주민들이 한데 어울려 정을 쌓아가는 가족적인 행사에 놀랍다'며 28회째나 된 비룡제를 부러워했다.

축제 둘째날, 마음을 추스른 500여명의 참가자들은 흐드러게 핀 연분홍 철쭉의 환호를 받으며 산행을 시작했다. 이번 비룡제에 맞춰 제2회 경상남도 등산연합회장배 등산대회가 참가 산악인들의 발길을 더욱 가볍게 했다. 그래선지 산악회별로 '여성 1명, 남자 3명씩' 조를 이룬 각 대원들은 백천사~백천재~민재봉~남양 4대대로 이어지는 9㎞여 거리를 가뿐하게 오르내렸다. 승천하는 용처럼 지역발전과 번영을 기원하면서.

시민수필>>

와룡산이 주는 값진 선물

오늘은 와룡산의 철쭉이 그리운 심사에 느긋하게 봄맛을 즐기려 산을 오른다.

봄 숲에 들어서니 풋풋한 향기가 정겹고, 흙 자체만이 가질 수있는 그 느낌만으로도 현안 해진다. 우리의 생명력은 흙에서 나온다. 그 흙 속에서 나무는 잎이 피고 꽃이 되어 사람들 삶 속으로 들어온다.

와룡산은 사천시의 중간에 우뚝 솟아 사천의 웅비를 뜻하는 한려수도 천혜의 자연경관과 원시림의 숨결 속에서 열리는 내 고장의 진산이며, 산인들이 우러러보는 산이다. 와룡산은 큰 인물이 될 사람이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라고 한다. 학창시절 교과서에서 읽었던 큰 바위 얼굴처럼 인자하면서도 위엄이 넘쳐 보이는 산이다. 언젠가 잠자는 용이 벌떡 일어나 사천의 큰 인물로 우뚝 서기를 기원해 보는 산이기도 하다.

남녘 해안가에 자리잡은 이 산은 높이에 비해 산세가 웅장하다. 암릉(巖陵)으로 이루어진 새섬바위와 상사바위, 기차바위의 빼어난 암벽과 부드러운 철쭉 능선길은 시원한 숲길에 드리워져 있다. 기암괴석과 한려수도가 한눈에 들어오는 절경을 보기 위해 외지에서도 많은 등산객이 찾고 있다. 높고 낮은 봉우리가 99개로 형성되어 구구연화봉이라 전해지는 예사로운 산이 아니다.

하나가 모자라 백 개의 골이 되지 못해 슬퍼 운다는 와룡산의 전설과 어울려, 제 사랑이 무거워 스스로 바람결에 지고 만 꽃잎이 되어버렸다는 상사바위를 안고 바야흐로 계절의 여왕 오월에 '구구~구구' 뻐꾸기의 울음소리가 온 산을 메아리친다.

민재봉(798m)에 서니 능선의 철쭉이 쪽빛 바다에 구름 속에 잠긴 듯한 섬들과 조화를 이루며 장대하게 펼쳐져 나를 텅 비워 버리게 한다. 불현듯 가슴에 알 수 없는 향수가 찡하게 젖어오는 것은 아마도 내 고향을 품고 있는 산이기 때문이리라. 저 아래로 때 묻지 않은 산과 바다는 오랜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 여유롭고 풍요로운 농촌을 그려가고 있는 내 고향은 자연의 순리에 맞춰 심는 대로 거둔다는 순수한 마음이 서려 있어 노자의 '무위자연'을 헤아려 보게 한다. 정상 부근에 널따란 평지가 있는 것도 신기하지만, 고봉들을 배경으로 한 붉은 꽃밭과 연둣빛 신록의 조화는 자연의 화폭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 타는 듯 붉은 철쭉이 온 산을 물들이니 황홀한 풍광에 가슴마저 붉게 탄다. 눈이 오면 눈에 젖고 바람 불면 바람에 씻기며 모진 광풍 이겨낸 인고의 세월에도 그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주며 청초한 마음으로 펼쳐내는 비경이야말로 무릉도원이 아니겠는가. 무르익는 봄을 불사르는 너는 정녕 5월의 여왕이로구나! 과연 진홍색으로 물들인 철쭉 터널의 산행 길은, 사천팔경의 하나로 전국에서 모여드는 산인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곳이기도 하다. '사랑의 즐거움'의 꽃말에는 험한 벼랑 끝에 피어 있는 아름다운 꽃을 꺾어 수로부인에게 바치며 읊은 삼국유사에 전해 오는 헌화가에 얽힌 설화가 깃들여 있다.

'붉디붉은 바위 끝에/ 잡고 온 암소를 놓아두고/ 나를 부끄러워 한다면/ 저 꽃을 바치겠나이다.'

누군가를 사랑함에서 삶의 기쁨이 되니, 예나 지금이나 사랑은 정말로 위대하다는 의미를 품고 있는 꽃이기도 하다.

그동안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너무나 소중한 자연을 잊고 살아왔다. 언제나 싱싱하게 살아 숨쉬는 자연의 향기와 표정을 바라볼 수 있는 행복감이야말로 웰빙의 비결이 아닐까?

지천에 피어 있는 산꽃들의 미소에 피로는 금방 씻어지고 세상에 시달린 고뇌는 솔바람에 흩어진다. 어여쁘게 지저귀는 산새들의 소리와 향긋한 꽃냄새가 감도는 봄기운을 크게 들이마셔 보며, 안토니오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 '사계'가 그대로 잘 묘사되어 있는 와룡산을 내려다본다. 계절에 따라 변하는 자연과 그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을 음악으로 묘사한 아름다운 서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는 와룡산에 사계의 '봄'이 상쾌한 음률을 타고 흐른다. 금방 화사한 봄꽃 같은 시어들은 내 가슴에 쏟아져 들어와 희망과 사랑의 생동감으로 가득 채운다. 와룡산은 만물을 품고 있는 생명의 산이다. 꽃은 나비와 나무는 새와 상생하며 산과 산은 계곡과 어우러져 사는 섭리를 보여준다. 그런데 올해의 봄 날씨는 좀 유별났다. 얼어버린 목련을 보며 자연의 조화를 거스를 수 없음을 보았다. 결코 서둘지 않는 겸손함과 기다림의 지혜를 배웠어야 했다. 우리는 자연을 보며 깨닫는다. 그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는 결국 후회와 회한의 긴 터널에서 헤어나 감사의 이치를 깨닫게 되고 자신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진다. 그 결과 어떻게 사는 것이 값진 것인가를 자연은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해준다. 오늘 나는 자연의 소중함과 내 고향의 소중함과 상생의 기쁨도 알게 되었으니 와룡산에서 얻은 이 값진 선물을 나누어주고 싶은 마음에 환희로 가득 찬다.

아름답고 신비스러운 새섬바위(797m)에서 천하가 내 것 같은 세상을 내려다본다. 마음이 갑갑해질 때면 와룡산에 올라 보자. 새로운 삶의 에너지가 충만하게 차 오를 것이다. 사람의 근본이 자연 속에 합일되어 있다는 것을, 삶을 초탈해 현재 몸담은 세상만사에서 까마득히 멀어지고 새로운 자신을 만나는 이곳, 아마도 그런 연유에서이리라.

/조금련 · 사천향토문화발전연구원 위원 · 수필가

사천시보에서 만나는 한국폴리텍대학

2005년도 대학평가 '최우수대학' 선정

학교법인 기능대학 산하 23개 대학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5년도 대학평가(교육여건 조성, 교육성과, 수용자만족도, 대학운영 분야)에서 한국폴리텍 항공대학이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되었다.

경남테크노파크와 지역인적자원개발 위한 협력

한국폴리텍항공대학(학장 이영희)과 경남테크노파크(대표이사 한일균)는 지난달 16일 한국폴리텍 항공대학 회의실에서 양기관 및 사천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상호지원 · 기술교류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돈독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인적자원개발(RHRD)의 허브(HUB)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공군제3훈련비행단, 항공기 엔진 10대 기증

한국폴리텍 항공대학은 지난달 10일 공군 제3훈련비행단으로부터 T-37용 항공기 제트 엔진(J69-T-25A) 10대와 관련 장비를 기증 받아 항공정비의 핵심기술인 엔진 분해 및 조립 실습에 활용하여 현장실무 중심 교육과 학생들의 고급 기술 습득교육에 완벽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항공대학생들의 이웃 사랑 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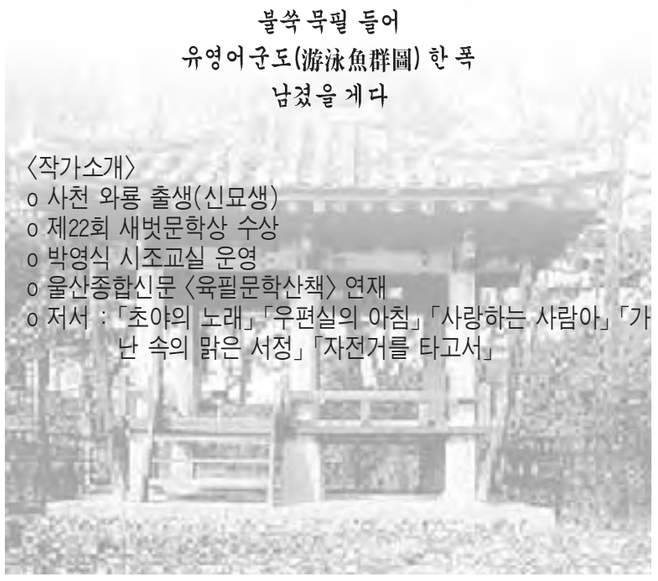
지난 5월 25일 저녁 7시부터 약 1시간 동안 한국폴리텍항공대학 '나눔자리' 봉사 동아리에서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라는 슬로건 아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이홀동에 위치한 합심원을 방문하여 원생들을 위한 5월 생일잔치를 마련하였다.

관어대(觀魚臺)

박영식

옛날
신선처럼 살다 간
선비들은
고책(古冊) 넘기다 말고
관어대에 걸터앉아
물 속 빤히 내려다보며
고기들 노는 모습에
하아, 고놈 고놈 참
감탄사 절로 삼켜가며
부드러운 곡선의 율동을
눈맛으로 느꼈을 게다

아무래도
그것들
눈에 삼삼거려
불쑥 묵필 들어
유영어군도(游泳魚群圖) 한 폭
남겼을 게다



〈작가소개〉
o 사천 와룡 출생(신묘생)
o 제22회 새벗문학상 수상
o 박영식 시조교실 운영
o 울산종합신문 〈육필문학산책〉 연재
o 저서 :「초야의 노래」「우편실의 아침」「사랑하는 사람아」「가난 속의 맑은 서정」「자전거를 타고서」

편지가 그리운 세상

이용호

퇴근길, 아파트 입구 우편함이 수북하다. 닭장같이 칸칸이 구분된 철제우편함은 미처 다 담지 못한 우편물로 터질 것만 같다. 일부는 우편함 위에 올려져 있고 몇 개는 바닥에도 나뒹굴고 있다. 후한 인심이라도 만난 듯 짐짓 몸을 돌려 살려본다. 우리 집 우편함에도 하나 가득 들어찬 게 다행히 부끄러움은 면한다. 쑤셔 넣다만 삐죽 나온 우편물 몇 개를 들여다본다. 쇼핑 홍보물도 보이고 카드사용 내역서도 두어 개 있다.

행여 사람냄새 나는 편지라도 있나 싶어 내심 기대를 갖고 눈에 힘을 주어 봤지만 예견대로다. 광고물들만 수두룩하다. 실망이라기보다 오히려 당연한 결과에 별다른 감회가 없다. 그래도 한점 아쉽다. 무언가 중요한 것이 사라지고 있다는 예감이 감회 없는 밋밋한 기분에 살짝 제동을 건다

그러고 보니 편지가 보이지 않는다. 얼마 전 방송에서 길거리 우체통 속에 들어 있지 않는 것을 맞추는 이상야릇한 장면을 본 적이 있다. 그 물음의 답은 편지였다. 의당 우편함에 들어있어야 할 주인인 편지는 오간데 없고 잡다한 생활쓰레기들이 수두룩 담겨져 있다는 시사적 내용이었다. 화면 가득 비쳐진 우체통 속은 그야말로 오물투성이었다. 그래서인지 요즈음 거리에서 빨간 우체통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핸드폰과 인터넷의 급속한 전파로 편지의 필요성이 사라진 만큼 우체통의 희귀성도 당연한 결과다. 언제든 어디서든 문자와 통화는 물론 화상까지 나눌 수 있는 시대이니 굳이 편지를 써야 하는 수고를 애써 하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편지가 주는 귀한 가치와 정서는 무시할 수 없다. 첨단을 달리는 시대지만 그 회색경쟁 속에서 사람들은 시나브로 회귀와 수동과 예전의 그것들을 그리워하고 있는 추세다. 지칠대로 지친 그들의 육신과 영혼을 안식시킬 곳은 고향이고 전원이고 사람들의 정이다. 편지가 주는 빛 바랜 가치가 바로 이것이다.

한 자 한 자 잉크를 묻혀가며 꽃 편지지를 수놓던 학창시절도 그랬고 애뜻한 사랑을 담아 낙엽 한 장 끼워 넣어 건네주었던 연애편지도 얼마나 절절했는가. 어버이날·스승의 날에도 서로 간 마음속 진심을 편지를 통해 나누며 마음 속에 담아 두었던 사랑을 확인하는 매체였다. 국군장병께 보내는 위문편지는 편지의 전통적인 가부장적 존재이기도 했다. 손으로 잉크를 묻혀가며 편지지를 메우는 동안 내안에 존재하는 사랑과 보은의 마음들을 되새기는 더없는 정서적 가치창출의 요람으로 편지는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이제 그 편지는 오간데 없다. 어쩌다 발견한 우편함 속 편지 한 통이 그렇게 반가울 수 없는 게 어쩌면 갈수록 메말라져 가는 세파의 반영인 듯 해 못내 아쉽다. 우리 동네 우편번호도 알리 없고 우체통이 어디에 있었는지도 행여 빨간색이었는지도 까마득히 잊어버렸다면 슬픈 일이다. 우표값이 얼마인지 수신자와 발신자를 어디에 써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 이웃이 되어 살아가는 세상이다. 우체국은 저리 잡다한 우편물만 배달하는 잡학 택배소로 인식할 뿐. 고단한 우체부 아저씨의 어깨가 더 무거워 보여 애처롭다. 편지를 쓰자. 다시 우표를 붙이고 오물로 가득한 우체통에 정이 담긴 편지가 가득 넘치게 하자.

〈우주항공소년 또롱이의 항공 이야기 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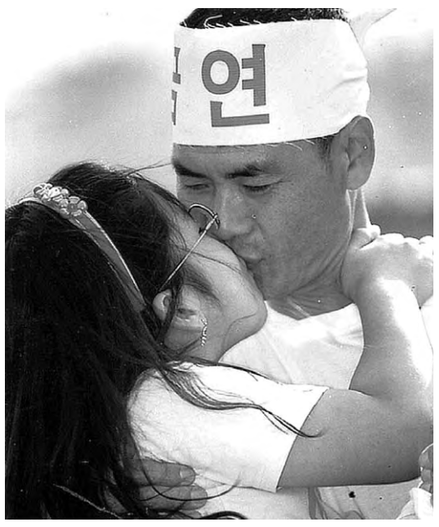
Kid's Aviation English(2)

처음 외국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공항에서 출국전에 다소 복잡한 여러 가지 출국절차를 거쳐야한다. 여행사에서 항공권(airline ticket)을 구입하고 출국 날 공항의 소속 항공사 카운터에서 여권(passport)을 제시하여 탑승권(boarding pass)을 발부 받는다. 그리고 비행기 타기 전에 출입국신고서(E/D card)를 작성하여 마지막으로 출국심사를 받게 되면 모든 출국수속이 끝난다. 출국심사관은 여권에 출국확인을 해주고, 출국신고서는 떼어낸 후 입국신고서는 여권과 함께 돌려준다. 입국신고서는 귀국할 때 필요하므로 귀국 때까지 보관하고,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귀국편의 비행기에서 다시 작성하면 된다. 출국심사를 마치게 되면 드디어 해당 항공기에 탑승이 가능하다. 출입국신고서는 미리 작성하는 것이 편리하며 출국수속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또한 가급적 탑승할 항공사의 양식을 사용하시는 것이 편리하다. 출입국 신고서는 입국시와 출국시 양식이 한 장에 붙어있으며 작성시 출국 및 입국 양식 모두를 작성해야만 한다.

이번 호에서는 어린이 항공영어(Kid 's Aviation English) 시리즈 두 번째로 입국신고서(arrival card)와 출국신고서(departure card) 작성에 필요한 필수 단어를 소개하고자 한다.

o 입국신고서 arrival card/arrival record, 입국카드 disembarkation card
o 출국신고서 departure card/departure record, 출국카드 embarkation card
o 성 family name/surname, 이름 first name/name
o 생년월일 date of birth, 출생지 place(country) of birth/country you were born in
o 남성 male, 여성 female, 국적 nationality, country of citizenship
o 여권번호 passport no./alien registration number, 직업 occupation
o 연락처 address in the country, 목적 purpose of visit
o 출발지 last city, port of boarding, 도착지 next city, port of landing
o 항공회사 이름/편명 airline and flight no., 서명 signature
o 비자 발생지 visa issued at, 거주국 resident of country

/김형래 · 한국폴리텍항공대학 교수



'사 랑' 김창곡

〈작가소개〉
o 송포동 거주
o 사진작가협회주관 사진대회 금상 4회 수상
o 진주 촬영대회 금상 수상
o 삼성사진 공모전 금상 수상
o 마산 누드사진 동상, 가작 수상
o 현 프리랜스 사진 작가

지난 5월 31일 금연의 날을 맞아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후원하는 '제7회 금연 사진공모'에서 입상을 한 작품이다.

소록도를 다녀와서

지난 5월 15일 새벽 6시, 염광마을 가족 30명과 함께 소록도행 버스에 올랐다.

이날은 전국 한센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록도 병원 개원 90주년 및 전국 한센인 가족의 날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다. 1916년 5월 일제가 전국의 한센병 환자들을 격리 수용하기 위해 '자혜의원'의 이름으로 문을 연지 90년이 된 것이다.

일제시대 한센인들은 강제 격리와 수용 속에 강제노역과 폭행에 시달리며, 임상실험의 대상이기도 하였다. 이곳에는 옛 병원 건물과 일제참배를 강요했던 신사, 한센인에게 강제로 정관수술을 했던 검사실, 탈출하다 붙잡힌 한센인을 감금했던 감금실 등 일제시대 만행과 잔재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 자료가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

현재의 소록도 병원은 한센병을 낫는다는 믿음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환자의 진료와 치료를 담당하고 치료 후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보도와 후생사업, 한센병에 관한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소록도에 남아있는 대부분 환자는 70~80대를 넘긴 700여명의 고령환자들이 200여명의 병원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의 도움을 받고 있다.

버스로 3시간을 달려 녹동선착장에 도착하였고, 도선이 운행되고 있었는데 배의 규모는 얼마 전까지 창선을 오가던 도선 규모였다.

녹동에서 배로 약 6분 정도 걸리는 가까운 거리에 소록도선착장이 위치하고 있었고, 소록도 병원까지는 도보로 약 15분이 소요되었고, 주변에는 나무들이 한센인들의 한을 머금은 채 아름다운 바다와 함께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한센인들은 한자리에 모인 기쁨도 잠시, 복받쳐 오르는 설움에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맘껏 외쳤다. 과거 역사의 폐해와 국민 기본권조차도 보장받지 못하고 사회의 냉대와 차별로 얼룩져온 한평생이었기에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다.

한센인의 명예회복과 인권회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일본 국회의 일제강점하 한센인 보상법 통과를 이루어낸 한센인들은 간절히 원하고 있다.

국회의 한센인 특별법제정과 당당히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

돌이켜보면, 우린 어릴 적부터 한센병 환자들을 보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했으며, 가급적 멀리하거나 함께하는 것 또한 터부시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한센병에 대하여 무지하다. 무지가 한센인들에 대한 차별과 냉대로 일관되어 왔다.

"한센병은 한센균(Mycobacterium leprae)에 의하여 발병되는 만성전염성 질환으로 피부와 말초신경에 주 병변을 일으키는 면역학적 질환이다." 한센병은 천형의 병이 아니라 약물로 치료가 되는 전염병에 불과하며, 병에 걸렸더라도 2주에서 2개월 정도 약을 먹으면 다른 사람에게 병을 옮기지 않으며, 병형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개 5년에서 20년 정도 꾸준히 약을 먹으면 완치가 된다.

한센병의 치료는 한센병 자체에 대한 치료와 한센병에 의한 후유증에 대한 치료로 나눌 수 있는데, 대부분의 소록도 입원자들은 한센병의 후유증에 대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요즘은 의학의 발달로 한센병에 의해 장애가 발생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한센병은 낫는 병이고 전염되지 않으며 질병의 한 종류 일 뿐이다. 그리고 한센인 평균 연령이 만70세에 이르고 있는 지금 한센인들의 일제강점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은 절박하다.

인간은 각기 다른 처지와 조건을 갖고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한센인들은 자녀들로부터 버림받고 사회적 냉대 속에 애환과 아픔을 속으로 삼키며 평생을 살아 왔다. 이제 우리사회가 진정 그들을 보듬어 안아 주어야 할 만큼 충분히 성숙했다고 본다. 우선 그를 위해 일제강점하를 포함한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우리도 진정 그들을 끌어안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한센인들도 우리와 똑같이 먹고, 자고, 생각하며, 느끼며 살아가는 인간이며, 우리가 인간으로 존중받기를 원하는 만큼 그들도 인간으로, 시민으로, 이웃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

나는 이번 행사를 통하여, 한센인들이 겪어야 했던 아픔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고, 아픔을 함께 하며 그분들이 남은 여생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시민 모두가 정말 그분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함께하는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기곤 · 정동면 사회복지전담

구룡폭포(金剛山 九龍瀑布)

이창동

晴日名山蓬萊行(청일명산봉래행)
맑은 날 이름 높은 금강산에 오르니

怪岩綠草樹林盛(괴암녹초수림성)
바위는 괴이하고 푸른 풀과 나무가 무성하네

玉流溪谷石潭漲(옥류계곡석담창)
옥류곡의 웅덩이에는 맑은 물이 넘치고

兩岸峭峰烟霧輕(양안초봉연무경)
양 언덕의 상봉에는 안개 가볍게 떠있구나

余月薰風花佼笑(여월훈풍화교소)
사월의 따스한 바람에 꽃은 예쁘게 웃고

行人嘯詠鳥驚鳴(행인소영조경명)
등산하는 사람들의 야호! 소리에 산새는 놀라 운다.

觀亭是問何時頃(관정시문하시경)
관폭정아 물어보자 언제가 될까?

震瀑如聞統一聲(진폭여문통일성)
폭포같이 우렁찬 통일함성 들을 날을.

*봉래=여름에 부르는 금강산의 별칭
*옥류계=구룡폭포로 가는 계곡. 천지연폭포를 비롯한 구름다리 잔도(잔도) 산수(山甾-바위굴) 석담(석담) 등등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절경이 많음.
*여월=음력 4월의 별칭
*소영=휘파람을 불거나 환호성을 지르는 것.
*관폭정(觀瀑亭)=옥류계 제일 위쪽의 구룡폭포 북쪽 맞은편에 있는 정자. 정자에서 남쪽을 향하여 건너다보면 선녀가 내려와서 목욕을 한다는 연못이 있고 여기서 흘러내리는 물이 구룡폭포다.
*진폭(震瀑)=선지(仙池)에서 흘러내리는 구룡폭포의 우렁찬 물소리.

내 고향 실안 한밭에서 미역 캐던 날

음력 사월 초파일을 전후하여 내 고향 한밭에서 미역 캐던 날,
미역 트레 어깨에 메고 선창으로 발길을 재촉하네.
바지게 짊어지고 선창으로 내달리네.
한밭으로 미역 캐러 내달리는 저 함성소리
삐걱 삐걱 노 저어면 쿵쿵 배끼리 부딪치는 소리
뿌드득 뿌드득 트레에 미역 감는 저 소리
킹킹대며 미역 트레 올리는 저 힘겨운 모습들.
어느새 만선으로 물으로 올라오는 남정들의 힘든 모습은
그러나 그들의 얼굴에는 만선의 기쁨이
바지게에 미역 가득 담아 달음박질치듯 바쁘네.
미역귀 먹고 싶어 졸졸 따라 가는 동네 꼬마들
동네 아낙네들 미역 말리느라 분주한데
동네 꼬마들 미역귀 몰래 따먹다 들켜 야단맞고 달아나네.
보리밥에 미역채 나물 넣어서 비빔밥 해먹던 그 시절이
그 아름답던 시절 오월이면 생각나네.

〈내 고향 실안 미역 캐던 날 소식을 접하고〉

/순천에서 양재훈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E-mail : gongbo@e4000.net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천읍 주민자치위, 도시락에 사랑 싣고

사천읍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성재근)는 '사랑으로 아름다운 세상을'이라는 슬로건 아래 거동이 불편한 이웃에게 사랑의 도시락을 나누어주고 있다. 도시락 사랑 배달사업은 2005년도에도 4개월 동안 매주 화·수요일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점심을 제공하는 무료급식소를 운영해 왔으며, 2006년도에도 화목(和睦)을 뜻하는 매주 화·목요일에 거동이 불편한 이웃 17명을 선정하여 점심도시락을 나누어주는 행사를 자치센터 자체사업으로 선정하여 전 회원이 자발적인 참여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 보온도시락 60개를 구입하여 재료를 직접 준비하고 정성이 담긴 점심과 밑반찬을 제공하여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

노인 공경은 이렇게

사천읍 수석3리 마을 경로행사에 식당업을 경영하는 김용조씨는 어버이와 노인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2002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마을 경로행사의 음식일체와 연 80만원 상당을 제공하고 있다.

메말라 가는 인심 속에서 타의 귀감이 될 수 있는 뜻 있는 일을 하면서도 주위에 알려지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어른 공경의 실천자인 김용조씨는 "앞으로도 능력이 될 때까지 계속 노인복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정동면 정동면 자원봉사회 효도관광

정동면 자원봉사회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관내 독거노인 28명을 모시고 노인 공경과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보성 녹차밭, 낙안읍성, 드라마 '사랑과 야망' 세트장을 둘러보는 효도관광을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노인들은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었으며, 봉사자들도 봉사의 보람을 만끽하였다.

또한 봉사회는 회원 35명이 혼연일체가 되어 푸드뱅크, 이·미용 봉사, 도배봉사, 목욕봉사, 효도관광, 어려운 가구 및 경로당 찾아가기 등의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공동체 형성에 앞장서 오고 있다.

시도 9호선, 코스모스 꽃길 조성

정동면사무소와 노인회는 동성초등학교에서 고읍 마을사이 약 1km 구간에 코스모스 꽃길 조성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개통된 이 도로에는 많은 아파트 주민들이 산책이나 운동을 즐기고, 중·고교생들의 등·하굣길로 이용되는 등 지역민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다. 따라서 지난 4월 면사무소에서 코스모스 씨앗을 구입하고 노인회에서 씨앗을 파종하였으며, 차량이나 보행자가 이곳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말목 설치, 잡초제거, 안내판 부착 등 정성을 쏟아 부었다.

"코스모스가 활짝 핀 가을 들녘을 생각하면 절로 가슴이 설렌다"는 노인회관계자의 말처럼 많은 면민들이 코스모스가 자라나 방긋 웃는 그날을 기대하고 있다.

한전사천점, 이웃에게 빛을

한전사천지점 사회봉사단(단장 박영호·회원 27명)은 2004년 5월 결성되어 어려운 이웃의 가정을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가정봉사(home helper) 위주로 활동하고 성금 기부나 물적 지원, 복지시설 방문 등의 봉사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를 방문하여 전기시설 점검 및 고효율 소모품 교체를 주로 실시하며, 단원들이 매월 모은 성금으로 어려운 계층에 대하여 생필품을 지원해 오고 있다. 2004년 10월 곤양면 이장협의회와 자매결연을 맺어 전기시설 점검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50여 가구에 배선 및 소모품을 교체해주고, 5회에 걸쳐 백미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등 찾아가는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올해에는 어린이날 이름표 달아주기, 와룡문화제 홍보탑 지원, 정동면 지역 150여 가구에 대하여 이동봉사 활동을 지원하고 어려운 계층에 생필품을 지원하는 등 모범적인 사회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남면 정축생 고희맞이 경로잔치

사남면 새마을지도자 남·여협의회(곽석도·이도남)는 지난달 10일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사남면 정축생 고희(古稀)맞이 경로행사'를 관내 유관기관장과 자생조직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여 경로효친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새마을 협의회가 주관하여 사남면에서는 10년째 고희를 맞는 어르신들을 초청하여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대접하고 간소한 생활용품을 선물하였다.

특히 면내 최장수 노인으로 금년 100수를 맞은 유석립(월성1리·1907. 9.16. 생·여) 할머님과 여생을 편안히 보낼 수 있도록 오늘까지 시모를 지극 정성으로 봉양해온 최일선 며느님(75세)을 함께 초청하여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선물(은수저 세트)과 함께 참석자 전체가 하례를 드렸으며, 여흥과 함께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용현면 어버이날 맞아 풍성한 경로행사

5월 가정의 달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용현면 마을 곳곳마다 어르신들을 모시고 야유회를 다녀오는 등 경로행사가 풍성하였다.

지난 4월 30일에는 용현면 청년화합회 주관으로 용현면 관내 거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중 65세 이상 어르신 약 200여명을 모시고 정성이 담긴 점심식사와 다과를 제공하고 2부에서는 노래자랑 등 각종 이벤트를 마련하여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였다.

또한 지난 5월 8일과 5월 한달 동안 선진마을 등 3곳에서는 평소 거동이 불편하거나 형편이 어려워 여행을 가지 못하는 분을 위해 효도관광을 마련하였다. 주문마을 등 20곳에서도 마을 부녀회와 청년회에서 어르신들의 무병장수 기원과 노고에 대한 감사로 풍성한 먹거리와 놀이공간을 마련하였으며 관내 교회와 봉사단체에서도 풍성한 경로행사를 펼쳤다.

곤양면 경남 8개시·군 친선궁도대회

지난달 13일 낙홍정(사두 최학성·곤양면 소재)에서 초여름을 방불케 하는 싱그러운 날씨에 경남 서북부 8개 시·군 13개정 친선 궁도대회가 200여 명의 궁도인들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최학성 사두는 개회사에서 "궁도는 예로부터 우리의 선조들이 아끼고 사랑하였고 멋과 운치를 가진 우리의 운동으로 우리 것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감은 물론 심신을 단련하는 생활체육으로 꾸준히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부경남 8개 시·군 13개정을 순회하며 개최하는 친선 궁도대회는 궁도의 기량향상과 궁도 인구 저변확대는 물론 지역간 화합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제3회 곤양면민 경로잔치

곤양면 남문외리 김미분씨는 지난 4월 28일 곤양초등학교 대강당에서 관내 노인들을 모시고 '제3회 곤양면민 경로잔치'를 개최하였다.

이날 경로잔치에는 곤양면뿐 아니라 인근 지역의 노인들도 참여한 가운데 곤양어린이집 유아들의 재롱잔치와 곤양 초등학교의 농악대 공연을 시작으로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또한 사천시 큰사랑회, 사천시 모자가정후원회, 곤양면 작은사랑 큰 행복회, 곤양초등학교, 곤양면 이장단 등 많은 기관단체들도 도움을 주었다.

이번 행사는 우리 지역사회에 웃어른을 섬기고 사랑하며 공경하는 풍토가 조성되어 평소 잊혀졌던 우리의 아름다운 풍속인 경로효친 사상을 다시금 생각하게 해주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였다.

서포면 품질 우수 광포만 재첩채취 한창

서포 광포만에서는 지난 5월 1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조도마을 80여명의 주민들이 올해 처음으로 재첩채취를 하였다.

광포만의 재첩은 바닷물과 민물이 교차하는 곳에서 성장한 특성으로 인해 씨알이 굵고 탄산 함류량이 많은 등 품질이 우수하다.

이날 3시간여동안 채취한 총량이 4.5톤이나 되었다.

서포사랑청년회, 경로위안잔치

서포면에서는 지난 5월 6일 노인들을 위한 경로위안 잔치가 서포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서포사랑청년회와 K씨의 1000만원 후원으로 노인들을 위한 재미있고 다양한 이벤트와 푸짐한 먹거리, 그리고 선물까지 준비해 잔치에 오신 노인들을 기쁘게 해드리는 등 서포면민 모두 하나되는 뜻깊은 행사였다.

동서동 2006년 새마을 '효' 편지쓰기

동서동 새마을부녀회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효' 정신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가정윤리 회복과 이웃에 대한 나눔사랑 정신을 심어주기 위하여 관내 대방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효' 편지쓰기 운동을 전개하였다. 최우수 1명, 우수 1명, 장려 18명을 선정하여 지난 5월 17일 소정의 도서상품권을 시상하는 등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에게 참다운 진리를 전하는데 힘써 나가고 있다.

※ 수상자 : 최우수 6학년 이미란, 우수 5학년 박누리, 장려 6학년 홍진우 강정아, 5학년 강남민 최혜림, 4학년 이지원 정근주 정은비, 3학년 강민수 이우람 박찬미, 2학년 정희산 박재한 정기철 이세희 노유진, 1학년 이희연 장효승 정현진

신수도 대구마을 수호신 해송

사천시 소재 섬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신수도 대구마을에는 마을을 지키는 작은 해송 한 그루가 있다.

200년 세월동안 모진 바람과 험난한 태풍을 작은 몸으로 받아내며 서 있는 이 해송은 누가 식재하지도 않았는데 자생하여 마을의 수호신이 되어 풍랑을 막아주고 있다고 전해지며, 이를 믿는 마을주민들은 해마다 스님을 초청하여 제를 지내고 있다.

해송은 지나온 세월이 버거운지 작년 7월부터 생을 힘겹게 버텨내고 있어 우리시 녹지공원과에서 한백산림환경나무 종합병원에 의뢰하여 영양제 투여, 고사지 전지 등 주기적 관리를 하고 있다.

크게는 신수도 대구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자 작게는 스스로 섬이 되어 자기 섬을 지키는 대구마을 해송은 비록 몸집은 작지만 그 위상과 고뇌만큼은 어느 마을의 수호신보다도 더 위대한 것으로 추앙 받고 있으며, 마을주민들은 해송이 올해도 변함없이 크고 작은 위험으로부터 마을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동서동 새마을회 합동월례회

지난 5월 3일 동서동사무소 회의실에서는 동서동 새마을 남·여 지도자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마을 합동월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5월 월례회는 새마을 남·여 지도자가 처음으로 합동 월례회를 갖고 각종 새마을사업 추진을 위해 회원 모두가 힘과 뜻을 결집하여 지역사회 파수꾼으로서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보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자는 결의를 다지는 뜻 깊은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새마을 남·여 지도자의 활동이 상호 협조와 연대로 더욱 조직적이고 활발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선구동 이웃사랑회, 독거노인 영정사진 제작

선구동 이웃사랑모임회(회장 박울립)는 혼자 사는 노인들이 생전의 삶도 외로운데 영정사진이 없어 장례식마저 쓸쓸히 치러야 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오던 중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영정사진을 무료로 지원키로 하고 어버이날을 기해 전달하였다.

영정사진은 사천시청 사진기사의 사진 무료촬영 지원과 이웃사랑회의 액자지원 등으로 적은 예산을 들여 24명의 많은 독거노인에게 수혜가 돌아갔다.

이웃사랑회는 앞으로 노인을 공경하고,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확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는 겸손한 말과 함께 아직도 지원할 가구가 많다며 계속 영정사진 제작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매월 4일 환경정비의 날 지정

선구동 자생조직단체(12개단체)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선구동을 만들기와 주민들의 자율적인 환경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마련을 위해 자체 '환경정비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키로 결의하고, 매월 1회 대대적인 환경정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5월은 지난 4일 통장협의회를 비롯한 자연보호협의회, 새마을남·여협의회 등 총 9개 단체가 참여하여 한내천을 비롯한 소공원 및 도로변 풀베기 등 수해대비와 연계하여 환경정비활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였다.

봄철 잦은 비로 무성해진 잡초제거, 하천변 각종 오물수거 및 장마철 폭우시 하천의 범람 우려를 대비해 포클레인 등 장비를 동원하여 하천준설 작업도 함께 실시하여 아름다운 선구동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동서금동 경로당에 의료기계 기증해

경남아파트에 거주하는 박금희씨는 지난달 8일 자신의 침대형 의료기계(시가 170만원 상당)를 동서금동사무소에 기증하여 왔다.

평소 자심의 건강이 좋지 않았던 박금희씨는 자신이 직접 효과를 느껴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기증한다는 뜻을 밝혀 자칫 소홀해지지 쉬운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동서금동에서는 박금희씨의 뜻을 담아 등대경로당에 전달하였다.

주민자치센터 공예교실 수강생 모집

동서금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오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최갑선 강사(공방 ABC대표)를 모시고 매주 화·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공예교실을 운영한다. 모집인원은 선착순 20명이며 수강료는 무료(재료비 본인부담)이다. 문의/☎830-4921

벌용동 코스모스단지 사진촬영지로 각광

벌용동은 지난달 26일 조직단체, 주민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3호광장 주위에 2,000평의 코스모스 단지 조성을 위해 토지정지와 파종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번 파종한 코스모스는 올해 9~10월에 개화할 예정으로 삼천포대교 진입의 첫 관문에 핀 꽃 단지가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사진촬영지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유채꽃 단지 3,000평을 조성하였으며, 다가오는 여름에는 메밀꽃단지 1,000평을 조성할 계획으로 계절별 특색 있는 꽃 단지를 조성하여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도심지의 볼거리를 제공해 오고 있다.

주민자치센터 서예팀 실력 괄목상대

벌용동 주민자치센터 서예팀은 지난 2004년 3월 자치센터 개설시 20여명의 정예회원으로 결성되어 운영해 오면서 와룡문화제 등 각종 문화행사에 참여하여 작품을 전시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 제1회 휘호대회에서는 3명이 입상(특선 최선이, 은상 김윤미, 입선 김숙자)하는 성과를 거두어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취미활동으로 배운 실력이 이제는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을 만큼의 괄목상대를 이루게 되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성공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향촌동 음악이 흐르는 편안한 공간, 향촌동

향촌동(동장 강호천)은 기존의 딱딱한 동사무소의 분위기를 깨고 시간대별로 음악시간을 운영하여 직원들뿐 아니라 동사무소를 찾는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직원들을 위해서는 아침시간대에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는 음악을, 마감시간대에는 하루 업무를 되돌아보고 정리할 수 있는 여유로운 음악을 제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민원집중시간에 민원을 위한 음악으로 예전에 비해 사무실에서 큰소리가 나는 민원이 현저히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사무실의 밝고 활기찬 분위기로 동사무소를 찾는 이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남양동 미룡해안도로 유채꽃 활짝

남양동 자연보호협의회(회장 김연국)는 미룡 해안도로변 공터 6000여평에 가꾼 유채꽃이 만개해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봄의 향기를 선사하고 있다. 이 지역은 옛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되어 사등 매립장의 준공으로 용도 폐지되었으나 남양동 자연보호협의회 회원들에 의해 아름다운 꽃밭으로 되살아났다.

회원들은 이 땅을 이용해 바닷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구경거리와 휴식처를 제공해 주기로 하고 틈틈이 시간을 내어 유채꽃을 파종하고 시비작업 등을 실시하였다.

우리고장의 문화재를 찾아서 (30)

용산리 사지(龍山里寺址)①

용산리 사지 내에 있는 우물터

용산리사지는 곤명면 용산리 334번지, 336-1번지에 위치하고 3,815㎡의 면적으로 1997년 12월 31일 경상남도기념물 제178호로 지정되었다.

용산리의 주산인 봉명산(鳳鳴山) 북쪽 산록(山麓)에 서봉사(栖鳳寺)의 옛 절터가 있는데, 현재 이 사지(寺址)는 차밭으로 조성되어 있으나 맑은 물이 흐르는 우물이 지금도 그대로 있고, 부서진 해태의 석상(石像)과 밭두렁에 파묻힌 돌기둥 그리고 식량(食糧)을 도정(搗精)하던 호박, 물레방아, 주춧돌, 축대, 당간지주석 등 석조유물이 여기저기 흩어져 현존(現存)하고 있음은 당시 절의 규모가 얼마만큼 웅장(雄壯)하였는지를 잘 나타내어 주고 있다. 이 절이 언제 누구에 의해 창건되고 또 언제 폐사가 되었는지를 모르다가 근래에 이르러 묻혀있던 서봉사기(栖鳳寺記)를 찾음으로써, 이 절에 대한 내력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지리지에 나타나는 서봉사에 관한 기록으로는 1425년에 간행된 경상도지리지 명산조에는 서봉산(棲鳳山)이라는 기록이 있고, 1530년에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 불우조에는 서봉사(栖鳳寺), 영악사(靈岳寺)가 같이 봉명산(鳳鳴山)에 있다고 되어 있으며, 1832년에 간행된 곤양읍지 불우조에는 서봉사가 옛날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棲鳳寺古有今無)고 하였고, 1937년에 간행된 교남지에도 지금은 폐사되었다(今廢)고 기록되어 있다.

사천시사(泗川市史)에 의하면, 이 절에 관한 기록으로 「영봉산용암사중창기(靈鳳山龍岩寺重創記)」, 「서봉사사적(栖鳳寺事蹟)」 등이 있다고 되어 있으나 '월간반야' (http://banyaam.com)의 자료에는 진주시 이반성면 용암리 207번지에 있는 용암사지의 기록으로 「영봉산용암사중창기」를 소개하고 있고, '부경역사연구소' (http://www.pkh.co.kr)의 자료에는 '남방비보 삼암사는 진주 영봉산 용암사와 광양 백계산 운암사 그리고 조계산 선암사인데...' 라는 기록이 있는 바 「영봉산용암사중창기」가 용산리사지의 기록으로 맞는지에 대하여는 좀 더 연구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영봉산용암사중창기」는 고려 충숙왕 5년(1318)에 박전지(朴全之)가 지은 것으로 현재 동문선(東文選) 권 68에 수록되어 전하고 있으며, 「서봉사사적」은 조선 영조 2년(1726)경에 이뤄진 목판본 사지(寺誌)로 현재 동국대학교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후자의 「서봉사사적」은 1336년, 즉 고려 충숙왕 복위 5년에 가정 이곡(稼亭 李穀)이 쓴 사적기(事跡記)와 그 후 효종 8년(1657)에 최응천(崔應天)이 쓴 서봉사기(栖鳳寺記)를 합하여 편찬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사적기(寺跡記) 중에 고려시대에 쓰여진 것이 극히 적은 편인데 이런 기문(記文)이 전해짐은 매우 다행으로 아주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서봉사의 초창연대는 신라 눌지왕(417~457) 때라 한다. 그러나 이때는 아직 신라에 불교가 공인되기 전이므로 믿기지 않으나, 《삼국유사》 가락국(駕洛國) 건국신화에 나오는 가야불교의 남방전래설(南方傳來說)을 상기하면 전혀 근거 없는 설만은 아닐 것이다. 진평왕(579~631) 때는 운집대사(雲集大師)가, 문무왕(661~680) 때는 의명대사(義明大師)가 이곳에 머물면서 중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신문왕(681~691) 때는 신라의 두 왕자가 이곳에 와서 의명(義明)을 스승으로 모시면서 머물렀다. 두 왕자는 4년간에 걸쳐 새로이 50여 칸의 건물을 세우고 석등(石燈)을 조성했다. 또한 이들은 대왕대비(大王大妃)를 위해 금당(金堂)의 주불 석가여래와 부처보살상을 조조(彫造)하여 낙성하기도 하고, 이때 절 이름을 봉암사(鳳岩寺)라고 했는데 용산리 북쪽에 위치한 산정의 바위가 봉황(鳳凰)의 벼슬과 같다 하여 봉암산(鳳岩山)의 이름에서 취한 것이라 한다.

9세기 중엽 법량선사(法諒禪師)가 이 절에 주석(主席)했는데 그는 이 절이 위치한 석봉산(石鳳山)을 영봉산(靈鳳山)으로 고쳤으며, 법량은 당시 혜해(慧解) 제1로 손꼽히던 고승(高僧)이었다. 가정 이곡의 사적기에는 법량이 장흥 천관산의 구정암(九精庵)에서 다라니(陀羅尼)를 얻고 이 서봉사에 돌아온 후 자호(自號)를 영봉(靈鳳)이라고 했기 때문에 석봉산을 영봉산으로 고쳤다. 법량은 하동 쌍계사 진감선사(眞鑑禪師) 혜소(慧昭 774~850)의 제자 법량과 동일인물일 것으로 추측한다.

그 후 890년경에 도선(道詵)이 이 절에 주석 했다. 하루는 지리산의 성모천왕(聖母天王)이 비밀히 부촉해서 말했다. "만일 삼봉(三鳳)에 삼암사(三岩寺)를 세우면 삼한(三韓)이 합하여 한 나라가 되고 전쟁이 저절로 종식될 것이다." 이에 도선이 세 절을 세웠으니 곧 서봉산(瑞鳳山)의 운암사(雲岩寺), 건봉산(乾鳳山)의 선암사(仙岩寺), 그리고 이 곳 영봉산(靈鳳山)의 용암사(龍岩寺)가 그것이다.

이상과 같은 내용은 박전지의 「영봉산용암사중창기」에 있는 것이다. 충숙왕의 명으로 중수된 용암사의 기문(記文)에 도선의 이와 같은 말을 인용하고 있음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고려 때는 용암사가 선암사, 운암사 등과 더불어 고려의 후삼국통일에 기여한 중요한 사찰로 인식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14세기초인 1314년(충숙왕 1)에 이 절이 당시의 국통(國統), 즉 국사(國師)인 무외(無畏)는 천태종(天台宗)의 고승으로 충렬왕(1275~1308) 때 왕사(王師)였고, 충숙왕 즉위년인 1313년에 국통이 되었다. 이처럼 25대 충렬, 26대 충선, 27대 충숙왕 등 고려 왕실과 깊은 인연이 있던 그가 1314년에 이 절로 옮겨옴으로서 고려 왕실의 도움으로 1315년부터 1318년까지 대대적인 중창이 이루어졌다.

그 후 무외국사의 제자 승숙(承淑)은 이곡(李穀)에게 부탁, 이 절의 사적을 기록케 했는데 이 때가 1336년(충숙왕 복위 5년)의 일이었다. 이로부터 약 300년간의 기록은 빠져있어 이 절의 역사를 알 수가 없다. 조선시대에 접어들어 언제부터인가 이 절은 서봉사(栖鳳寺)로 바뀐 듯하다. 물론 고려 때까지는 용암사(龍岩寺)로 불렀을 것이다. 조선 광해군 6년인 1614년 의현(義玄) 스님이 중창했고 이로부터 8~9년 후인 1622년 및 1623년에는 일잠(一岑), 경희(敬熙) 등이 서로 발원해 불전 및 동·서 선실(禪室)을 지었다. 최응천이 1657년(효종 8)에 서봉사기를 지었음은 이미 위에서 말한 바와 같지만, 이 당시 절의 규모가 대단하여 대웅전(大雄殿), 9층탑, 팔상전(捌相殿), 영산전(靈山殿), 명부전(冥府殿), 영자전(影子殿), 향로전(香爐殿), 봉황루(鳳凰樓), 봉하루(鳳下樓), 선당(禪堂), 승당(僧堂), 동상실(東上室), 서상실(西上室), 청산료(淸山寮), 두월료(斗月寮), 함월료(含月寮), 만월당(滿月堂), 매구당(梅口堂), 열반당(涅槃堂), 봉황문(鳳凰門), 세진정(洗塵亭) 등의 전당이 늘어서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7세기 중엽의 미륵암(彌勒庵 : 현재의 보안암, 지정문화재로 석굴이 있음)과 봉암(鳳庵), 직조암(直照庵)의 동, 서, 남 3암은 서봉사에 딸린 암자였다. 직조암에 대해서는 무용(無用) 수연(秀演:1651~1719)이 쓴 영남로 곤양군 봉명산 직조암 신성모연문(嶺南路 昆陽郡 鳳鳴山 直照庵 新成募緣文)이 전해진다.(無用堂集 卷下)

이에 의하면 서봉사 남쪽 백보쯤 밖의 절터가 있었고 광밀(廣密)이라고 하는 스님이 직조암 재건(再建)의 발원을 세웠던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조영규 · 시청 세무과

와룡산의 메아리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미국 워싱턴의 한국전참전 기념비에는 'Freedom is not free(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나는 이 말을 참으로 의미 깊은 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오늘날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조상들이 처절하게 목숨을 바쳐 피를 흘리며 희생을 치른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피를 흘렸고, 지금도 일부 나라들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전쟁에서 이겨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거의가 전쟁으로 점철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외세 침략의 역사인 셈이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자리잡고 있어 끊임없이 외세의 가혹한 침탈을 겪었다. 중국, 몽골, 일본의 침략은 다반사로 겪었고, 지금도 이념의 장벽을 극복하지 못하고 남북으로 갈려 동족끼리 으르렁거리고 있다. 지구촌 유일의 분단국가 처지에서 우리나라가 살아갈 길은 오로지 힘을 길러 자유나 평화는 절대로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는 일이다. 그래서 국방의 의무가 국민의 4대 의무가 되고 많은 젊은이들이 국토수호의 의무를 다하려고 젊음을 불태운다.

세계적으로 긴장이 완화되고 북한과도 대북 햇볕정책으로 평화무드가 조성돼 있지만 아직은 북한과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총부리를 겨누고 있다. 설혹 북한과 평화통일이 이뤄진다고 해도 주변의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열강들은 우리에게 매우 위협적인 존재이다.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 고구려사와 발해사를 왜곡하며 야심을 불태우고 일본은 독도를 넘보며 제국주의의 근성을 보이며 미국도 자국의 이익을 꾀하려고 혈안이고 러시아도 암암리에 힘을 과시하려고 노력 중이다. 주변 고래들의 몸집 불리기에 수수방관하다간 우리 나라는 새우처럼 등이 산산조각 날지도 모른다.

우리나라가 두 번 다시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으려면 강력한 힘을 길러야 한다. 자유와 평화는 절대로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국가 위기시 설마 누군가가 지켜주겠지 하는 안이한 발상은 버리고 독자 생존한다는 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 바야흐로 생존경쟁, 적자생존의 시대이다. 정치, 경제, 군사, 교육, 문화, 체육, 예술, 과학기술 등 다방면에 걸쳐 강력한 힘과 위상을 갖춰 외세의 야욕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국력을 길러야 한다. 강하면 결코 남들이 함부로 얕잡아 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외세침략의 수모를 겪으며 처절한 삶을 살았지만 후손들은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누리며 금수강산에서 양질의 삶을 누리게 해야 한다. 산자수명한 우리의 국토는 사람살기에 나무랄 데 없이 좋은 땅이다. 이렇게 좋은 국토를 잘 지켜 후손 대대로 길이길이 보전해 배달민족의 기개와 역량을 세계에 널리 퍼뜨려야겠다. 지금까지 숱한 외세의 침략에도 꿋꿋이 버텨온 저력 있는 민족이 아니던가? 온 국민이 똘똘 뭉쳐 힘을 기르고 지도층에서는 먼 앞날을 내다보고 지혜로운 외교를 펼치면 세계를 주도하는 일류국가가 되리라 확신한다.

/박정도 · 부산시 사하구 다대2동

사천땅 테두리를 따라>>

사천시 경계종주(境界縱走) ③

돌장고개에 있는 두문리 이정표석 (마구할매 물레돌)

돌장고개는 전설의 고향에도 방영됐던 마구할매 물레돌이 있는 사천시와 진주시의 경계가 되는 지점이다. 양쪽 모두 금곡이라 부르고 있지만 사천은 금곡(琴谷)이고 진주는 금곡(金谷)이다. 옛날 이 물레돌은 이정표 역할을 하면서 지나는 나그네의 정겨운 벗이 되어 반갑게 맞아주곤 했다. 그러나 도로가 확장되고 또 얼마 전에는 통영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마구할매 물레돌은 아무도 들떠보지 않는 도로 절개지 위로 옮겨져 괴물 같은 자동차의 물결을 지켜보면서 외롭게 서있다.

전설에 의하면 옛날 천태산 마구할매가 물레돌을 구하기 위하여 해동 땅을 다 되진 끝에 둔암(屯岩·사천읍 두량3리)마을 뒷산인 몽돌바위아래 배틀바위에서 물레돌을 찾아 머리에 이고 오다가 이 고개에서 잠시 쉬었다. 그런데 내려놓은 돌이 땅에 박혀서 꼼짝도 하지 않아 마구할매는 할 수없이 다른 돌을 찾으러 가고 물레돌만 남아있어 지금껏 돌장고개라고 부르고 있는데 안내문(두문리이정표석-경남문화재자료179호)에는 내용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었다.

여기서 낙남정간을 따라 1시간 남짓 다리품을 팔면 호룡산(虎龍山·274m)을 지나 무선산(舞仙山·277.5m)이다. 이름으로 보면 신선이 춤을 추고 놀았다는 산이지만 가시덤불과 잡목에 묻혀 그 무엇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호룡산에는 선산이 있고, 무선산은 몽돌바위산과 함께 어린 시절의 추억이 서린 곳으로 한없이 정겹게 느껴지는 산이다. 그러나 무선산 아래 필자가 다녔던 사동초등학교는 이제 폐교가 되었고, 지금은 순수 우리 콩으로 콩나물을 기르는 초록빛 마을이 되었다.

무선산에서 사천땅은 낙남정간과 잠시 이별을 한다. 봉대산에서 어정산을 거쳐 함께 오던 낙남은 무선산 정상에서 오른쪽으로 겪어 진주시 금곡면과 정촌면을 경계하고 사천시 경계는 곧장 서남쪽으로 향한다. 지금까지는 낙남구간이라 길이 좋았지만 이제부터는 전혀 산길이 이어지지 않는다. 멧돼지의 흔적을 따라 지도를 확인하면서 능선을 타고 내려서면 다시 통영고속도로를 만난다. 고속도로를 횡단하여 산등성이로 오르면 바로 사천읍 두량리 산1번지다. 야트막한 능선을 따라 단감나무 밭을 지나서 사천특산옹기공장으로 내려서고 오른쪽은 진주시 정촌면 관봉리와 접하고 있다. 하천 둑을 따라 두량저수지로 들어선다. 관율마을의 농경지를 지나 개고개에서 저수지 가장자리를 따르면 강태공은 줄을 잇고 엄청난 쓰레기가 구석구석에 쌓여있다. 떠내려 온 생활쓰레기도 많지만 낚시꾼들이 버린 쓰레기가 태반이다. 이어서 장미농원을 지난다. 큰 규모에 잘 다듬어진 조경수와 함께 활짝 핀 목련과 옥매화가 나그네를 반긴다. 가족단위 야유회라도 왔으면 좋겠다.

솔밭공원을 지나 저수지 무넘기에 도착한다. 둑을 따라 준공기념비를 찾았으나 대(竹)숲에 묻힌 남주제준공 기념비는 잡초가 무성하고 철책은 녹이 슬어 허물어졌다. 왜 관리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일까? 사천시와 진주시를 잇는 구름다리를 건너서 둑으로 올라선다. 두량저수지는 일제때 조성된 사천제일의 저수지이다. 넓은 초원과 벚꽃나무가 많은 자연유원지로서 학창시절 봄소풍 단골메뉴였던 곳이기도 하다. 곳곳에 진주시장의 안내문이 있다. 물은 사천시에서 관리하는데 땅은 진주 땅인 것이다. 이곳에 양쪽 시에서 다리 하나만 가설하면 좋을 것을….

사천시와 진주시를 가르는 중선천을 따르면 들판은 온통 하얀 하우스로 가득하다. 언제부터 여기도 하우스단지가 되었는가? 철길을 지나서도 하우스단지는 계속되고 진삼선국도 가까이 화개천과 합류하면서 시경계는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 축동초등학교 앞을 지난다. 그러나 경지정리를 하면서 하천을 직선으로 끊다보니 외형상 경계는 하천이지만 사실상 일부 토지는 진주시의 하천부지로서 사천시에 편입되어있다.

길평마을을 지나 대축천을 따르면 진주시 정촌면과 접하고 있는 진삼선도로에 도착한다. 자동차 정비공장과 대단위 자동차 매매단지가 들어서 있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전원관광 휴양단지로서 이 자리에는 고급 조경수와 수석전시장으로 멋진 자리에 예식장과 모텔, 커피숍 등으로 한때 사천에서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던 곳이다. 그러나 주인은 더 큰 야망을 품었다가 하루아침에 모두를 잃었다. 한사람의 허황된 꿈이 무참하게 망가져 버린 그 자리를 지켜보는 나그네의 마음은 더없이 씁쓸했다. 누가 말했던가? 부(富)와 권력은 함께 갖지 말라고….

/조만종 · 사천농협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격동 54년의 피맺힌 절규

부모님들을 위한 그때 그 시절 향수(鄕愁)의 무대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악극은 향수(鄕愁)입니다. 부모님들이 어릴 적 재미나게 보았던 악극, 악극은 화려하지 않지만 정적이면서도 관객들의 가슴을 파고드는 신파극으로서 주인공에게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 주인공은 나 자신이 되고 주인공이 기쁘면 웃고, 슬프면 눈물을 흘리게 되는 바로 우리 부모님의 이야기입니다

▶공연일정

- o 일시 : 6월 24일(토) 오후 4시, 7시
- o 장소 : 사천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o 입장료 : R석/10,000원(현매 13,000원), S석/8,000원(현매 10,000원), A석 6,000원(현매 8,000원)
- o 주최 : 사천시
- o 주관 : 사천시문화예술회관, (사)연극배우협회
- o 후원 : 국무총리복권위원회, 문화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전국 문예회관연합회
- o 예매처: SK텔레콤(세영점) ☎834-0170, 해림문고 ☎835-0960, 청탑인스튜디오 ☎833-8355, 라데팡스안경 삼천포점 ☎835-6688, 용진당안경원 ☎852-3191, 뮤직랜드 ☎852-7070, 문화예술회관 ☎830-4441

▶줄거리

6·25 전쟁통에 4세 된 아들을 고아원에 맡긴 채 미국으로 가버렸던 오진희가 30여년 만에 귀국을 하면서 막이 오른다. 자신이 어머니라는 사실을 숨긴 채 아들 정호의 집에 기거하던 중 췌장암 말기의 시한부 인생인 오진희는 병원에 입원을 하였다가 결국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 공항으로 향하는데, 아들 한정호의 '어머니' 하는 울부짖음이 용서와 화해의 애절함 속에 막이 내린다.